

# [NOX] 시나리오 설정



작성자: 임현규

## Revision

날짜	작업내용	작업자	Version
2016.04.04	최초 문서 작성 시작	임 현규	1.0
2016.04.08	시놉시스 스토리 라인 1 차 작성 완료.	임 현규	1.1
2016.04.18	스토리 라인 수정 완료(2 차)	임 현규	1.2
2016.04.22	액트 4 스토리 보드 완료	임 현규	1.3
2016.04.25	문서 양식 변경 및 퇴고 작업 시작	임 현규	1.4
2016.04.26	액트 6 스토리 보드 완료	임 현규	1.5
2016.04.29	액트 8 스토리 보드 완료	임 현규	1.6
2016.06.02	스토리 다이얼로그 액트 8 완료	임 현규	1.7

# 목차

REVISION .....	0
목차 .....	1
1. <b>시나리오 설정</b> .....	2
1.1 시놉시스 .....	2
1.2 스토리 라인 .....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3 클래스 배경 .....	3
1.4 지역 배경 .....	11
1.5 몬스터 배경 .....	12
1.6 몬스터 네이밍 리스트 .....	17
2. <b>스토리 보드</b> .....	21
2.1 액트 별 시나리오 .....	21
2.2 프롤로그 .....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3 버서커 다이얼로그 .....	29
2.4 데몬헌터 다이얼로그 .....	31
2.5 아칸 다이얼로그 .....	35
2.6 나이트 다이얼로그 .....	38
2.7 공통 다이얼로그 .....	41

# 1. 시나리오 설정

## 1.1 시놉시스

만물의 뿌리이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세계수가 있었다. 그 세계수가 뿜어내는 강력한 수호의 힘으로 인해 아슬란이라는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세계수로부터 아슬란을 다스릴 세 명의 신들이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를 다스리는 로난과, 균형을 조율하는 녹스, 파괴의 힘을 지닌 보이드였다. 세 명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비슷하여서 삼권분립과 같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어느 한 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파괴의 힘을 지닌 보이드는 다른 두 신들을 굴복시키고, 아슬란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그러던 중, 보이드는 우연치 않게 세계수를 지탱하는 수호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수호의 힘을 쟁취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얻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결국 수호의 힘의 일부를 찾아내어 흡수한 보이드는 강력해진 파괴의 힘으로 아슬란을 공포로 물들이려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녹스는 보이드를 물리쳐 균형을 조율하고자 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던 사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로난과 힘을 합치게 된다. 그리하여 녹스와 로난이 힘을 합쳐 겨우 보이드를 차원 너머로 봉인하는데 성공하지만, 그 여파로 인해 녹스와 로난의 육체는 소멸하고 만다.

녹스와 로난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마지막 남은 힘을 인간들에게 물려주고, 보이드의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교단을 세우게 된다.

대재앙을 일으킬뻔한 보이드를 봉인하는 것에 성공하자 아슬란에는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슬란에 평화로운 때가 무한할 것이라고 느낄 즈음, 보이드를 구속하던 봉인이 점점 느슨해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이드는 균열의 틈새로 정신 기생충을 흘려보내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될 추종자들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자신의 봉인을 완전히 풀기 위해 녹스와 로난의 교단에서 봉인을 관리하는 대신관의 목숨을 빼앗고는 봉인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이에 아슬란에는 다시금 대재앙의 그림자가 엄습해오고, 세상은 흥흥한 분위기 속에서 보이드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아비규환이 되어가고 만다.

이에 아슬란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진 4 명의 용사들이 보이드를 물리치려 일어나게 되고, 저마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 1.2 클래스 배경

### ➤ 버서커 클래스 배경 - 렉스 한니발(시나리오 상 이름)

렉스 한니발은 카이온 소속의 무명의 전사 아버지와 밤과 어둠의 여신을 섬겼던 여신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였다. 그러나 렉스가 갓난아기이고, 어머니가 렉스의 동생을 뱃속에 잉태했을 적에 아버지가 전쟁 중 불귀의 객이 되어 버렸고, 그 충격에선지 어머니 또한 치유할 수 없는 지병을 얻게 된다. 결국 병상에서 렉스의 동생을 출산하지만, 지병으로 인해 허약해진 터라 동생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뜨고 만다. 부모를 일찍이 여윈 어린 렉스와 그의 동생은 어머니가 여신관으로 있었던 녹스의 신도들이 수습하게 된다.

렉스는 아버지를 닮아 힘도 세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검술과 전투 훈련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성년이 되었을 때는 녹스 교단 내부의 무관이 되었다. 렉스의 동생은 어머니를 닮아 유순한 성격에 내향적이라 교단 내의 신관 시험을 통해 하급 신관이 된다. 그렇게 형제들은 3년이 지났을 때, 교단 최고의 대무관과 대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교단의 대신관이 된 동생은 교단의 규율에 맞게 보이드의 봉인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이드의 봉인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서서히 봉인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봉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자, 봉인을 관리하던 대신관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동생을 보며 렉스는 매우 안타까워했으며, 동생의 지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그러던 중, 보이드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보이드가 균열로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 기생충을 흩뿌린다. 아슬란 곳곳에 퍼져 버린 정신기생충들은 목적에 충실하게 보이드의 추종자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갔고, 그 추종자는 보이드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아슬란 곳곳에서 암약하였다. 그 추종자들은 렉스가 동생의 지병을 낫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녹스의 힘을 온전히 물려 받은 교단의 대신관의 목숨을 취해 보이드의 봉인을 해제하려 한다. 이에 대신관을 교단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렉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추종자들은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을 이용하여 렉스의 정신과 영혼을 제어하는 계략을 펼친다.

렉스는 그 날도 침상에서 녹스에게 동생의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가장 취약한 때라는 것을 간파한 추종자들이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을 이용하여 렉스의 정신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하여 렉스는 보이드의 추종자들이 시키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그 일을 해내곤 했다. 그 모든 일은 보이드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초석과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렇게 보이드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마지막에 이르러 동생의 지병을 낫게 하는 제단 의식을 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여전히 정신 지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렉스는 새벽녘에 곤히 잠든 동생을 업고 제단 의식을 하기 위한 낯선 장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단 의식을 진행하게 되고, 렉스는 의식이 마무리될 즈음에 대신관이었던 동생이 가지고 있는 녹스의 힘이 사방으로 퍼질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렉스의 온 몸은 친동생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왼손에는 도려낸 동생의 심장이 아직도 펄떡거리며 뛰고 있었다. 어쩌다가 자신의 손으로 동생의 심장을 도려내었던 건지 알 수 없는 렉스는 아연실색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천천히 숨이 멎어 차갑게 식어가는 동생의 시체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낮빛이 창백하게 변하여 어안이 병병한 렉스의 눈 앞에 그 동안 자신의 정신을 지배했었던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지난 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렉스는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친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게 만든 보이드와 그 추종자들로 인하여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그 존재의 흔적조차 지워버리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 다짐을 한 순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광전사로서 각성을 하게 된다.

➤ 캐릭터 설명에 쓰일 간추린 버서커 클래스 배경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인 친동생과 함께 험한 세상을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다.

그 중 동생은 어머니의 지병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허약한 신체를 가졌지만, 성실하고 신앙심이 깊어 교단에서 대신관의 자리에 오른다.

허약한 동생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그의 형은 신관을 호위하는 교단의 무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대신관을 호위하는 대무관이 된다.

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동생의 지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그러던 와중에, 보이드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의 틈새로 흘러보낸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을 통해 추종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봉인을 완전히 풀기 위해 추종자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였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녹스의 힘을 온전히 물려 받은 녹스 교단의 대신관을 제물로 삼아야 했고,

그 대신관을 납치하기 위해 그의 형을 이용하였다.

사악한 정신기생충을 통해 형의 정신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정신을 지배 당한 형은 자기 손으로 직접 동생의 심장을 도려내어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동생의 비명 소리에 정신을 차린 형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친동생을 죽이게 만든 보이드와 그 추종자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겠노라 다짐하였다.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며, 다짐을 하던 순간 교단의 대무관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광전사로서 새로이 각성을 하게 된다.

▶ 데몬헌터 클래스 배경 – 루시 알렉산더(시나리오 상 이름)

루시 알렉산더는 북부 패권을 장악한 로아나프 외곽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정은 평범하였고, 어린 시절만큼은 행복하게 보냈다. 그러나 로아나프가 북부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수많은 나라들이 비밀리에 연합하여 로아나프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로아나프는 내부에서부터 속얕이를 하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라 내부의 분란은 조용해졌으나, 외곽 도시들은 여전히 민심이 흉흉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와 살인이 일어나곤 했다. 루시의 가족들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집단 강도들의 타겟이 되었고, 다락방의 곡식을 담아두던 소쿠리에 숨은 루시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몰살 당하게 된다.

그렇게 로아나프의 외곽 소도시들을 전전궁궁하며, 구걸하여 하루를 버티는 거지 생활을 하던 중, 빛의 신을 섬기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루시는 집단 강도들에게 가족이 몰살 당한 것 때문에 불의와 악행을 뱉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루시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교단의 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빛의 인도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보이드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 틈새로 보이드의 사악한 힘과 정신기생충들이 새어 나오게 된다. 그것들은 보이드의 추종자를 만들었고, 그 수를 점점 늘려나갔다. 안타깝게도 빛의 교단의 대신관 또한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에게 정신을 지배 당하게 되고, 빛의 교단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보이드의 꼭두각시가 되어 갔다.

빛의 교단은 대신관에서부터 말단의 하급 신관까지 보이드를 추종하는 자들도 물들어 갔는데, 루시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에게 정신을 지배 당한 루시와 빛의 인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루시는 자신이 자라왔던 교단의 고아원으로 향하였다. 모든 가족들을 잃고 온 루시에게 고아원의 아이들은 루시의 형제와도 같았으며, 고아원의 원장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정신을 지배 당한 루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아원의 모든 이들을 학살하고 고아원을 불태웠다. 그리고 화마에 뒤덮인 고아원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을 때, 보이드의 봉인이 풀리면서 루시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된다. 보이드의 정신기생충에게 정신을 지배 당해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루시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하며 오열한다. 루시는 교단의 빛의 인도자로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온화하게 교화를 하였으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생각을 고쳐 먹는다. 바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른 보이드와 그 추종자들을 사냥해 뿌리째 없애버리는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된다.

➤ 캐릭터 설명에 쓰일 간추린 데몬헌터 클래스 배경

북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로아나프에서 태어난 루시 알렉산더.

유복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루시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다.

바로 힘으로 북부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을 찍어 누르던 로아나프 였기에, 로아나프의 속국들은 치안과 민심이 흥흥하였다.

루시의 마을도 이와 다르지 않았으며, 대대적인 집단 강도들이 쳐들어 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루시의 집은 그들의 타겟이 되었으며, 다락방의 곡식을 담던 소쿠리에 숨은 루시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참변을 당하게 된다.

모든 가족을 잃고, 외곽 소도시를 전전긍긍하며, 거지 꼴을 면치 못했지만, 빛의 교단의 신도에 의해 교단의 고아원으로 가게 된다.

고아원에서 성년이 된 후, 아직도 어린 시절의 비극을 잊지 못한 루시는 그런 불의와 악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빛의 교단의 무관, 빛의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보이드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의 틈새로 흘러보낸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을 통해 추종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빛의 교단의 대신관마저 그 사악한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이드의 추종자가 되어 버렸고, 빛의 교단은 서서히 보이드의 꼭두각시가 되어 갔다.

대신관이 보이드의 추종자가 되어 버리니 그 밑의 신관들과 빛의 인도자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보이드의 추종자가 되었고, 이는 루시도 피해갈 수 없었다.

루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자라왔던 고아원의 사람들 또한 학살하였다.

루시는 고아원을 불태우며, 화마에 뒤덮인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보이드의 봉인이 풀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보이드의 추종자로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절규하고, 오열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만든 보이드를 잡아 죽이기 위해 빛의 인도자가 아닌 악마들의 사냥꾼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 ▶ 아칸 클래스 배경 - 넬 슈리온

넬 슈리온의 종족은 세계수에 의해 아슬란의 모든 자연을 수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종족이다. 그러나 신들의 전쟁에서 파괴의 신 보이드를 물리치고 봉인하는 과정에서 슈리온을 제외한 동족들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슈리온은 오랜 시간 동안 외로이 살아가는 목적도 잊고 지냈으나, 어느 순간에 신들과 모든 동족이 죽고 자신만이 왜 살아 남았는지를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남은 까닭은 바로 보이드를 봉인한 이들은 '소멸' 하였지만, 차원 너머로 봉인 당한 보이드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로 슈리온은 파괴의 신 보이드의 봉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시간이 흘러 세계수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평범한 인간들의 세계가 열리고 나서도 슈리온의 일상은 한결 같았다. 그러던 중, 차원 너머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당황한 슈리온은 어떻게든 균열을 막으려 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균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생겨난 균열은 시간이 지나자 틈이 벌어질 정도로 커지게 되었고, 그 틈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생충들과 사악한 파괴의 힘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슈리온은 더 이상 봉인과 가까운 곳에 지내면서 감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인간들의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슈리온의 생각보다 인간들은 한 없이 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 심지어 틈새로 새어 나온 기생충들과 강력한 파괴의 힘에 영향을 받아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슈리온은 사람들을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파괴의 힘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힘에 취한 자들을 쫓게 된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따로 행동하였고, 어느 때에 은밀한 곳에 모여 작당모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슈리온은 과거 보이드를 봉인하며 소멸했었던 녹스와 로난의 힘을 물려 받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훗날 그들과 동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기로 기약하고, 슈리온은 정체를 숨기고 그들과 같이 파괴의 힘에 취한 척하며,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숨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드의 추종자가 되어 이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기 위한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 캐릭터 설명에 쓰일 간추린 아칸 클래스 배경

넬 슈리온의 종족은 세계수에 의해 자연을 수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종족이다.

그러나 파괴의 신 보이드를 물리치고 봉인하는 과정에서 슈리온을 제외한 모든 동족들이 소멸해버렸고, 슈리온은 한참이나 살아가는 목적 없이 외로이 지내게 된다.

슈리온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 남은 이유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기 시작했고, 그 까닭은 보이드의 봉인을 감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시 세계수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어 평범한 인간들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슈리온은 그 때에도 보이드의 봉인을 감시하는 한결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보이드의 봉인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당황한 슈리온은 이를 막으려 애썼지만, 모든 방법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지고 틈이 벌어졌고, 그 틈새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생충과 사악한 기운이 흘러 나오게 된다.

그 사악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가까운 곳에서 보이드의 봉인을 지켜볼 수 없었기에 인간들의 세계로 나아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슈리온의 기준에서 인간들은 한 없이 약하고 도움이 안되는 존재였고,

심지어 틈새로 새어 나온 기생충과 사악한 기운에 영향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였다.

슈리온은 그 현상과 힘,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필요성을 느꼈다.

슈리온은 그들과 함께 사악한 기운에 취한 척 하며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깨닫고는 그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그렇게 슈리온은 정체를 숨기고 그들과 같은 보이드의 추종자들이 되어 이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기 위한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 나이트 클래스 배경 - 제롬 레오파드(시나리오 상 이름)

레오파드 가문은 남부 패권을 장악한 이오리아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에 개국공신의 역할을 했던 궁지 높은 무력 가문이다. 제롬 레오파드는 레오파드 가문의 4대 장손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매우 유복하게 보냈다. 어려서부터 가문의 장손에게만 전해주는 쌍검술과 전투 훈련을 받으며 청년기를 보냈다.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남들보다 몇 년은 빠르게 기사 승급 시험에 통과하여 기사단원이 되었고, 무력 가문의 위세와 출중한 쌍검술 실력으로 승승장구하였다.

기사단 안에서도 출중한 쌍검술 실력으로 인해 주어진 어떤 임무든 훌륭히 완수해냈고, 제롬의 이름은 황실기사단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제롬의 이름이 종종 들려오자 황실기사단장은 제롬의 실력이 궁금해졌고, 그의 임무를 직접 지켜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의 쌍검술 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고, 그 후 제롬을 항상 주시했다.

시간이 흐르고 제롬은 무력과 지력을 모두 겸비해야 들어갈 수 있다던 황실기사단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간 제롬을 지켜본 황실기사단장에 의해 기다렸다는 듯이 초고속으로 황실기사단의 부단장으로 승급하게 된다.

그렇게 탄탄대로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제롬의 인생이 180도 돌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북부 지역의 적대국에서 내부 분란을 잠재울 지원 병력을 요청한 것이다. 이오리아의 국왕은 이 요구를 받아주면서 적대 관계에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길 명하였고, 이 요청을 들어주게 된다.

국왕의 바람대로 요청을 들어준 뒤, 화친의 의사를 밝혔고, 동맹을 본격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이오리아의 사신과 호위 임무를 맡은 황실기사단원을 사절단으로 보냈다. 그 사절단의 호위 임무를 제롬이 맡게 되었다.

그 나라에 도착해서 동맹을 체결하고, 좋은 일에는 연회가 빠질 수 없다면서 국왕이 친히 직접 행차하여 연회를 열어주었다. 이오리아의 사절단은 뜻 밖의 대환영에 즐겁게 연회를 즐겼다. 그러나 연회 도중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괴한들이 수십 명이 닥쳐오더니 다짜고짜 이오리아의 사절단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제롬과 사절단은 급히 방어진을 짜고 대항했으나 수적열세에 밀려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겨우내 나라 밖으로 도망쳤으나, 살아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제롬밖에 없었다.

말도 없이 다친 몸을 이끌고 보름이 넘게 걸어서 이오리아에 도착하게 되지만, 나라 외곽에서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자신의 몽타주가 그려진 수배 전단지를 보게 되고, 이윽고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음을 알게 된다. 바로 동맹을 맺으러 간 자리에서 그 나라의 국왕을 살해하려 했으며, 그 때문에 이오리아의 명예와 위신을 깎아 내리고,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었다. 이 때문에 타국 국왕의 살인 미수와 더불어 7개의 중죄목이 붙었으며, 이미 레오파드 가문은 파문 당하고 가문의 모든 식솔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가족을 포함한 식솔들이 교수형에 처해졌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이 제롬의 내면 속에서 끓어올랐지만, 혈혈단신으로 이오리아의 국왕에게 따지러 가는 것은 교수형을 당하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다. 애써 분노심을 삭히며, 이오리아 바깥으로 빠져 나와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이러한 누명을 씌우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인지 낱알이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 캐릭터 설명에 쓰일 간추린 나이트 클래스 배경

레오파드 가문은 강력한 무력 가문으로 이오리아라는 나라의 개국공신 역할을 하였다.

그런 레오파드 가문의 4대 장손은 제롬은 장손에게만 주어지는 가문의 쌍검술과 전투 훈련을 받았다.

제롬이 성년이 되었을 때 같은 나이에서는 제롬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고,

제롬은 최연소의 나이로 이오리아의 기사단에 입단하게 된다.

기사단 내부에서도 그의 출중한 쌍검술 실력은 점점 더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황실 기사단장의 귀에까지 흘러갔다.

시간이 흐르고, 제롬은 최연소로 황실기사단의 부단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던 중, 북부 지역의 적대국에서 지원 병력을 요청하게 되고, 온화한 이오리아의 국왕은 이번 요청을 들어주며, 그 적대국과의 관계를 동맹국으로 바꾸길 원한다.

그렇게 적대국을 도와주며, 그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는 때가 찾아왔고, 그 사절단의 호위 대장을 제롬이 맡게 된다.

동맹을 체결하고 관계 회복을 축하하는 연회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복면 괴한들이 급습하였고, 제롬을 포함한 사절단은 도망치기 급급했다.

나라 밖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살아 남은 이는 제롬 뿐 이었다.

다친 몸을 이끌고 이오리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롬에게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국의 국왕을 암살하려 한 대역죄인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

레오파드 가문의 식솔들은 연대 책임을 물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제롬은 남부 지역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다.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으며,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이 죽었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의 다친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애써 분노를 삭이면서 나라 밖으로 나와 어떻게 된 일이고, 누가 이러한 누명을 씌우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건지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 1.3 지역 배경

- 아슬란
  - ✓ 태초의 신 보이드에 의해 창조된 로난이 만든 대륙.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며, 창조의 권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만든 곳 이기에 어떤 종족이 살아도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살기 좋은 대륙이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보이드가 깨어나게 되고 이후 아슬란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 이오리아
  - ✓ 아슬란 대륙 남부에 위치한 거대 국가. 아슬란 남부 지역의 기후가 따뜻하여,
  - ✓ 보이드가 강림하기 이전의 이오리아는 따뜻한 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가 온난하였고, 비도 필요한 때에 자주 오는 나라였다. 때문에 식물들이 살기 최적의 장소여서 나라 주변에 넓은 숲과 정글을 보유한 나라였다. 숲지기 엘프들의 주요 서식지이며, 이들 때문이라도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가 전해지곤 했다.
- 카이온
  - ✓ 전사들의 나라, 기사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에 기골이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였으나, 보이드가 강림한 이후 지속되는 위협에 국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로아나프의 타락한 황제 멜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 로아나프
  - ✓ 타락한 황제 멜의 나라이다. 아슬란 대륙에서 가장 큰 땅 덩어리를 갖고 있었으며,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통해 벌어들이는 재물로 인해 아슬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 강대국이라 평가되었던 다른 3 나라와 비교해도 항상 1 순위의 국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로아나프의 수장이었던 멜 황제가 스스로 보이드에게 투항하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슬란 연합이 깨지고 본격적으로 보이드의 계략이 시작되기도 한 곳이다.
- 레피루스
  - ✓ 레피루스는 원래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규모가 아닌 그저 사제들의 교단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점차 사제들의 숫자가 많아지더니 급기야 나라를 형성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이에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여 레피루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레피루스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장 신전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 곳의 사제들은 수호의 권능을 지닌 녹스와 녹스의 창조된 조력자들을 추앙하고 숭배하며, 그들에게서 나누어 받은 수호의 권능을 통해 보이드에게 가장 효과적인 저항을 한 곳이기도 하다.

## 1.4 몬스터 배경

### ➤ 액트 1 (이오리아 수풀 지역)

#### ✓ 피그미, 피그마

✚ 고블린과 같이 이오리아 근방 숲 지역에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개체로써, 지능은 고블린보다도 떨어지지만, 나름의 군집을 형성하여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한다. 피그미, 피그마라고 나누어 부르는 이유는 암수를 구분한 것으로 피그미가 암컷, 피그마가 수컷이다. 또한 개중 가장 지능이 높은 몇몇 개체가 족장, 부족장 같은 역할을 한다. 다른 욕심은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을 넓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먹을 열매나 식물이 부족해지면 족장과 부족장 지휘 아래 다른 먹고 살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며칠 간 안전한 지역인지 몇 가지 시험을 거친 다음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으로 모두를 이주시켜 살아가는 방법으로 개체의 세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방식으로 침범한 대상을 공격한다. 그 대상을 만날 경우 제 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러 주변의 피그미, 피그마들에게 이를 알린다.

#### ✓ 시체청소부 피구르

✚ 본래 피그미족은 초식성 종족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구르는 그 종족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입에 풀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피구르 부모가 자연사한 다람쥐나 토끼를 가져다 주니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고 한다. 그러나 피그미족은 애초에 지능이 낮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산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종족 지역 내 자연사한 동물의 시체에서 수급한 썩은 고기를 먹으며 지냈다고 한다.

#### ✓ 인색한 피기마르

✚ 욕심이 없는 피그미족인데, 피기마르만큼은 예외였다. 자신이 따온 열매도 자기의 것이지만 남이 따온 열매도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강제로 뺏어버리면 군집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도태될까 두려워 남이 먹고 남은 열매를 가져왔다. 그렇게 항상 피기마르의 열매냥은 항상 짝 차 있었고, 이 냥을 열 때는 자기 자신이 열매를 먹을 때뿐이었다. 피기마르는 욕심도 많았지만 인색하기도 해서 그 날 열매를 못 따 다른 피그미족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법이 없었다. 항상 자기 먹을 것 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게 쌓아두다가 다 먹지 못하고 열매가 썩어버려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었지만 그래도 피기마르는 절대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썩은 열매를 버리는 것이 다른 피그미족에게 몇 번 들통난 뒤로 피기마르의 별명은 인색한 피기마르가 되어 버렸다.

- ✓ 나가 사냥꾼, 전사, 마법사
  - ✚ 숲지기 엘프와 함께 이오리아 근방의 숲을 지키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종족이었지만, 파멸의 보이드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로, 정신이 타락해버려 이오리아 숲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을 적대시하며 공격한다. 피그미족과는 다르게 도구를 만들고 활용할 줄 알고 있으며, 나가 종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고 근골이 뛰어난 편이라 해가 진 숲에서 마주칠 경우 어떻게 도망칠 지부터 고민해야 된다. 이들은 다리가 뱀의 비늘로 되어 있어 이족, 사족 보행하는 개체보다 느낄 것 같지만 비늘을 S자로 흔들며 의외의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 나가 일족 중 태어날 때부터 자연의 힘을 다룰 줄 아는 소수의 개체가 존재하며 그 개체들은 사냥꾼이나 전사가 아닌 자연의 힘을 발전시켜 마법과 같은 위력을 낼 수도 있는 개체도 존재한다.
- ✓ 명사수 오디세우스
  - ✚ 나가 일족의 오디세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시력이 우수한 편이었다. 근골이나 힘이 센 편은 아니었지만, 우수한 시력으로 인해 백발백중의 활 솜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나가 일족의 명사수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 ✓ 돌격의 오이디푸스
  - ✚ 나가 일족의 오이디푸스는 파멸의 보이드가 이오리아 숲을 휩쓸고 지나갈 때 불행히도 보이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본래 힘도 약하고 근골도 좋지 못했지만 오기와 끈기만큼은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던 오이디푸스는 보이드에게 정신이 타락할 때 유독 그런 오기와 끈기가 더욱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정신이 타락한 뒤로 오기와 끈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 다른 타락한 나가 일족의 어떤 전사보다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타락하지 않은 아슬란 연합 세력이 이오리아 숲을 정화시키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오이디푸스는 아슬란 연합 세력의 퇴로와 진로를 막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들어 길을 막는 것은 예사였기에 그런 괴력으로 인해 정화 작업이 수 차례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괴력의 오이디푸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 ✓ 법관 판도라
  - ✚ 나가 일족 중에서도 소수의 개체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을 타고 난다. 그 소수의 개체 중에서도 수컷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었는데, 이 때문에 자연의 힘은 암컷의 소유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판도라는 그런 암컷들 중에서 군계일학으로 미모가 뛰어났으며, 못 다른 수컷 나가 일족들의 구애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도라의 눈에 차는 수컷이 없기에 매번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에 보이드에 의해 나가 일족이 타락하게 되자 판도라의 어여쁜 미모는 뇌쇄적으로 변모하였고, 변모한 외모를 바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개체를 매혹시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마법으로 대상을 죽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 자연의 레글리스

✚ 나가 일족처럼 다리가 없으며 양 팔만 있는 형체는 비슷하지만, 이는 레글리스라고 불리는 보이드의 전용 하수인이다. 본디 아슬란에 존재하던 생명체가 아니며, 보이드가 아슬란에 강림할 때에 창조된 개체로 징그럽고 고약한 냄새를 뿜어대는 것으로 유명하다. 레글리스는 비슷한 형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아슬란 곳곳에 존재한다. 대개 매끈하고 진흙 같은 피부에 다리가 없고 기어 다니는 형상은 비슷하지만 걸 모습이 주변 환경에 의해 카멜레온처럼 변하곤 했다. 보이드에 의해 이오리아 근방 숲에 살게 되었으며, 이 곳에서 보이드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 이오리아 숲 지역에 살다 보니 피부가 동화되어 나무껍질처럼 변하였고, 나무 재질의 뿔도 생기게 되었다. 아마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주로 있는 재질과 비슷한 느낌으로 동화될 것이다.

✓ 시험의 퀸투스

✚ 보이드의 전용 하수인 중 하나로서 레글리스보다 상위 등급의 하수인이다. 이오리아 숲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레글리스와 함께 이오리아 숲 전체를 타락시키게 한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 액트 2(베히모스 요새)

✓ 모르델로

✚ 쥐와 개를 합쳐 놓은 형상이며, 4 족 보행을 한다. 생김새와 다르게 의외로 충성도가 강해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기도 하였으며, 일반적인 개보다 지닌 힘이 강하여 밭을 갈거나 그 외 다양한 용도로 기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이드에 의해 타락한 이후 종족 자체가 도저히 기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하게 변하게 된다.

✓ 날랜 레토

✚ 모르델로 중에서 다리를 빠르게 쓰는 놈들을 골라 경주 도박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레토는 그 중에서도 유독 4 다리를 자유자재로 민첩하게 사용하던 놈으로 항상 경주 도박에서 수많은 우승을 해낸 경주 도박계의 스타 러너였다. 레토가 출전하는 날이면 높은 확률로 우승하기에 도박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용돈 벌이를 위해 나올 정도여서 도박 주최측에서도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보이드에 의해 모르델로종 전체가 보이드의 하수인화 되어 버리자 레토는 모르델로종의 수장으로 격상되어 다른 모르델로들을 진두지휘하는 몬스터가 되어버린다.

✓ 레토라

✚ 일반적인 쥐가 흑마법사들의 금지된 마법으로 인해 생겨난 쥐 형상의 몬스터로 쥐들의 돌연변이이다. 이들은 이족 보행이 가능하며,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두뇌를 갖게 되었다. 두뇌를 갖게 되자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종들끼리 뭉쳐서 하수구에 군집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도구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 그들의 손은 쥐의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수와 모양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다른 종들의 물건을 약탈할 때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은 바로 쇠뇌였다. 손가락 튕기는 것 한 번에 강력한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되니 이들에게는 쇠뇌만한 물건이 없었다. 그 때부터 이들은 돌연변이 쥐, 쥐새끼 대신 레토라라는 새로운 종족으로서 인정받고 불리게 되었다.

✓ 일격의 다프네

✚ 손 모양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레토라였지만 다프네는 특이하게도 손까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변이된 케이스였다. 거기다가 명석한 두뇌는 덤이었고, 다프네는 자신만이 가진 복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더욱 강한 쇠뇌를 만들어냈다. 일반 쇠뇌에 비해 더 질긴 활시위와 단단한 활대로 인해 1 발 1 발이 위력적으로 바뀐 다프네의 강화 쇠뇌는 그 어떤 레토라들보다 강하고 위협적이었다.

- ✓ 칼리고
  - ✚ 칼리고는 매우 오랜 시간부터 존재해왔던 공포의 대명사로 검은 연기 같은 만질 수 없는 형체로 유명하다. 아슬란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령이나 망령이 보통 칼리고를 보며 지칭된 단어 중 하나이다. 초대의 칼리고들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다른 존재들에게 깜짝 놀래도록 장난 정도만 치던 존재였으나, 시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진화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진화하였다. 원체 태생이 악한 존재라 보이드의 타락이 없었어도 인간들에겐 큰 위협이었고, 보이드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이후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 ✓ 공포의 오넬로
  - ✚ 오넬로는 모든 칼리고들의 수장이다. 오넬로가 태어날 때에 주변의 모든 어둠을 끌어와 태생부터 그 어둠의 크기가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칼리고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앞장서서 칼리고들을 무장시켰으며 과거 깜짝 장난밖에 못하던 칼리고를 진정한 악몽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게 한 장본인이다.
- ✓ 세피엔스
  - ✚ 세피엔스는 고블린 계통의 여러 종 중 하나이다. 세피엔스들은 두뇌 발달이 극도로 낮게 이루어져 고블린 중에서도 멍청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고블린들은 군집을 이뤄 다른 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같은 종들을 지켜주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지만 세피엔스 고블린들은 다른 이끌어 줄 리더가 없으면 군집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피엔스 고블린들은 보이드에 의해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두 개 달린 오우거, 쿠르크에 의해 모조리 노예가 되어 버렸다. 쿠르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거진 보이드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 ✓ 돌팔매의 판달로
- ✓ 사악한 베아루스
- ✓ 충돌의 쿠르크
- ✓ 추악한 페르페투스
- 액트 3(로아나프 성채)
- 액트 4(아그문트 용암수령)
- 액트 5(레피루스 고대 신전)
- 액트 6(황야의 모래수령)
- 액트 7(카이온의 빙정 호수)
- 액트 8 (보이드의 지옥수령)

## 1.5 몬스터 네이밍 리스트

액트	구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액트 1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피그미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시체청소부 피구르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피그마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인색한 피기마르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나가일족 전사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돌격의 수페르모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나가일족 사냥꾼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명사수 페르미토	
	중상급 일반 몬스터	나가일족 마법사	
	중상급 정예 몬스터	법관 판도라	
	중간 보스 일반 몬스터	레글리스	
	중간 보스 몬스터	자연의 레글리스	
	보스 몬스터	시험의 퀸투스	
액트 2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모르델로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날랜 레토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레토라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일격의 다프네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칼리고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공포의 오넬로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세피엔스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돌팔매의 판달로	
	중상급 정예 몬스터	사악한 베아루스	
	중간 보스 몬스터	충돌의 쿠르크	
	보스 몬스터	추악한 페르페투스	

액트	구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액트 3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셀레투스 워리어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악훈 칼리오페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셀레투스 아처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영원한 칼리로에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에레스시스 워리어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교살자 그리모크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에레스시스 프리스트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참살자 데스로크	
	중상급 일반 몬스터	나가일족 흑마법사	
	중상급 정예 몬스터	칠흑의 테네시움	
	중간 보스 몬스터	역겨운 쿠이안	
	보스 몬스터	타락한 황제-멜	
	액트 4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우리온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탐욕의 그로울린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우리안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야비한 테쿨로트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크루티오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억압하는 프레쿠스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크라테오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감시하는 스페쿠트	
중상급 일반 몬스터		용암 페르세크	
중상급 정예 몬스터		어둠추적자 로켈토즈	
알골		용암 발리두스	
알골 정예		괴력의 쿠메투스	
중간 보스 몬스터		강압의 드레이크	
보스 몬스터		타락한 빛 로난	
보스 소환 몬스터		카텔러스	

액트	구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액트 5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누키프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파고드는 포디코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누케이프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쇄도하는 미카루스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크로코딘 워리어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춤추는 모르데크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크로코딘 스피어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꺾는 라스파고	
	중상급 일반 몬스터 1	레플리스	
	중상급 정예 몬스터 1	고약한 레플리스	
	중상급 일반 몬스터 2	고대 페르세크	
	중상급 정예 몬스터 2	암살자 미아스튜터	
	중간 보스 몬스터	강철주먹 케라버그	
	보스 몬스터	신전수호자 브란데움	
	액트 6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세마누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거대한 퓨네로스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세마니아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돌연변이 클루라즈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황야 트루크스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학살자 바르베우스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황야 트랙스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일발필중 글로레즈	
중상급 일반 몬스터 1		황야 페트레일	
중상급 정예 몬스터 1		악몽의 라피템	
중상급 일반 몬스터 2		황야 펠키움	
중상급 정예 몬스터 2		기도하는 에피네즈	
중간 보스 몬스터		무덤바위 루스트룸	
보스 몬스터		황야의 지배자 잉겔리아	

액트	구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액트 7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헤젤로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번덕스런 아타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헤젤린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괴팍한 모로고스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하스코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급습하는 레키토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헤스코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마구잡이 데프트르	
	중상급 일반 몬스터 1	빙정 발리두스	
	중상급 정예 몬스터 1	정신나간 포르페즈	
	중상급 일반 몬스터 2	빙정 페트레일	
	중상급 정예 몬스터 2	빙한의 델키움	
	중간 보스 몬스터	빙정신수 프리켈리두즈	
	보스 몬스터	푸른 불꽃 베르디우스	
액트 8	하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엘베토	
	하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도려내는 보른	
	하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벨라토	
	하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맹독의 스킨루스	
	중급 근거리 일반 몬스터	티펠티오	
	중급 근거리 정예 몬스터	맹신의 잉겔룬	
	중급 원거리 일반 몬스터	티펠레오	
	중급 원거리 정예 몬스터	중얼거리는 넬로포스	
	중상급 일반 몬스터 1	지옥 펠키움	
	중상급 정예 몬스터 1	지옥늑 이베르나	
	중상급 일반 몬스터 2	셀레투스 킹	
	중상급 정예 몬스터 2	지옥수령 솔리누스	
	중간 보스 몬스터	포효하는 헤르케리움	
	보스 몬스터	파멸의 보이드	

## 2. 스토리 보드 (수정중)

### 2.1 액트 별 시나리오

#### ➤ 액트 1

- ✓ 광전사로서 각성한 렉스, 빛의 인도자에서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된 루시, 보이드의 사악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슈리온,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찾기 위한 제롬이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 ✓ 4 명의 영웅들은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느꼈던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트라우마와도 같기 때문에 그 때 느꼈던 보이드의 기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상태였다. 보이드에게 다가서려면 그 기운을 잊지 않고, 어디선가 그런 비슷한 기운만 느껴져도 홀리듯 그 곳으로 가곤 했다. 그렇게 4 명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이 미미하게라도 느껴지면 그 곳을 거쳐갔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4 명은 이오리아의 웨르의 숲 근처로 모이게 된다.
- ✓ 이 숲은 보이드가 봉인이 풀리기 전까지만 해도 '봄을 알리는 따뜻한 숲' 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우거진 숲과 나무들을 가지고 있는 넓은 숲이었다. 그러나 보이드의 봉인이 풀리고, 보이드의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이 아슬란 전역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하자,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에 타락하여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 되곤 했다.
- ✓ 이오리아의 웨르의 숲에도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 퀸투스가 점거하여 그 지역에 살던 숲 수호자들과 원주민들을 사악한 기운으로 타락시키고 오염시켰다. 그리하여 웨르의 숲에 살던 모든 종들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갔으며, 잔혹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다.
- ✓ 4 명의 영웅들은 웨르의 숲 근처를 지나다가 상급 하수인 퀸투스가 뿜어내는 보이드의 사악한 기운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느껴지는 이 기운의 근원지를 찾아가다 보면 보이드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기운을 따라 가게 된다.
- ✓ 그 기운의 끝, 근원지에는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 퀸투스가 있었고, 4 명의 영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퀸투스를 물리쳐버린다.

- 액트 2(베히모스 요새 외곽, 요새 입구, 요새 초입, 요새 중심부 등)
  - ✓ 웨르의 숲에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던 상급 하수인 퀸투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며, 그 곳에서 4 명의 수호자들은 처음 만나게 된다.
  - ✓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목적이 같음을 알게 되자, 함께 여정을 이어나가기로 한 수호자들은 제롬의 제안으로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로 향하게 된다.
  - ✓ 그러나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히모스 요새를 지나쳐 가야했는데, 이 요새는 난공불락이라는 수식어 붙을 정도의 견고한 천혜의 요새라고 일컬었다.
  - ✓ 염려는 되었지만, 수호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곳이기에 베히모스 요새로 몰래 잠입하는데 성공한다.
  - ✓ 그런데 요새 안에는 일반 병사들은 온데 간데 없고, 웬 흉측한 괴수들이 사방천지에 깔려있었다. 수호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요새 안의 괴수들을 싹 정리하고는 그 여세를 몰아 요새의 수문장까지 물리쳐낸다.
  - ✓ 그리고 요새의 지하 통로가 로아나프의 비밀스런 장소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통로를 따라 로아나프 비밀스런 장소로 이동한다.

- 액트 3(로아나프 성채 외곽, 로아나프 성채 입구, 로아나프 중심부, 로아나프 황실 등)
  - ✓ 지하 통로를 따라 가니 그 곳에는 베히모스 요새보다 더한 참상이 수호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 요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괴수들과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악령들이 수호자들을 반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출현하는 방향을 따라 깊숙히 들어가니 그 곳에는 무고한 시민들을 괴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영혼 또한 가두어 악령을 생성하는 곳이었다.
  - ✓ 분개한 수호자들은 괴수들을 만드는 의식의 성소와 영혼으로 악령을 만들어내는 영혼 감옥소를 파괴해버리고, 로아나프의 타락한 황제가 있는 비밀 전당으로 향한다.
  - ✓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로아나프의 타락한 황제 멜은 이미 기괴해질대로 기괴해져 자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 되어버렸으며, 수호자들은 그런 타락한 멜 또한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 ✓ 멜 황제를 물리치고 각자의 부상을 돌보는 와중에, 악마사냥꾼 루시가 사망한 멜 황제의 품 속에서 이상한 서신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서신에 적혀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된다.

➤ 액트 4(아그문트 용암지대, 용암수렁, 용암감옥 등)

- ✓ 이상한 서신에 적혀있는 곳은 바로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용암 지대, 아그문트였다. 이 곳은 원래 화산이 있는 지역은 맞았으나, 화산의 활동이 뜸해지다가 아예 활동을 하지 않아 죽은 화산으로 분류되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어느 새부터 인가 죽었다고 알려진 화산이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용암을 내뿜으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였고, 이 지역에는 용암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
- ✓ 과거 인간들이 살았을 적 사용하였던 건물들이 있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이 살던 집은 용암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허물어져 버렸지만, 포로 수용소로 쓰이던 철제 건축물과 구조물들은 견고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 악마 사냥꾼 루시가 찾아낸 이상한 서신에는 용암 지대인 아그문트에 하수인들을 더 보내라는 명령서였는데, 수호자들은 이 곳에서 추종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그문트 지역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 ✓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에는 곡괭이와 등짐을 지고 다니는 하수인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그들은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 뜨거운 용암 광산에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 ✓ 수호자들은 아그문트에 존재하는 보이드의 추종자들과 하수인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것을 찾기 시작했다.
- ✓ 그러자 그 곳에서 수호자들은 과거 신들의 세계일적에 세계수의 근원이 되었던 수호석 1 개를 찾아낼 수 있었고, 보이드는 과거 신들의 세계에서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수호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수호석이 이끄는대로 서부 지역의 레피루스로 향하게 된다.

- 액트 5(레피루스 고대 신전 외곽, 입구, 동서남북쪽 신전 내부, 신전 중심부)
  - ✓ 레피루스는 원래 나라가 아니었고, 종교 집단의 이름이었으나 이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지역을 넓혀가다가 그 규모가 나라와 같아서 교주를 국왕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곳이었다.
  - ✓ 잠시 쉬어갈 목적으로 들른 곳이었지만, 그 곳에서 수상한 김새를 눈치채고는 레피루스 왕국 내 고대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된 수호자들은 역시 그 곳에서도 또 다른 수호석을 찾으려 하는 보이드의 추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 ✓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이들을 물리쳤고, 그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그문트에서 얻은 수호석이 수호자들을 더 강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전을 지키던 보이드의 하수인 또한 단숨에 물리쳐버린다.
  - ✓ 그리고 그들이 찾던 또 다른 수호석 또한 수호자들이 찾아서 총 2개의 수호석을 가지게 된다.
  - ✓ 2개의 수호석으로 인해 육신을 잃었던 밤의 여신 녹스가 수호자들의 눈 앞에 현신하게 되고, 녹스는 덕분에 소멸하지 않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안내자 역할과 보이드와 맞설 때 조력자가 되기로 한다.
  - ✓ 그 때 보이드와 그의 하수인들 또한 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슬란 대륙 다른 곳에 있는 수호석 2개를 손에 넣고자 하였고, 1개를 손에 넣자 여신 녹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보이드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 액트 6(황야의 모래수렁, 모래언덕, 모래바람언덕, 죽음의 땅)
  - ✓ 또 다른 수호석이 있던 곳, 아슬란 대륙에서 가장 거대하고 울창한 숲과 정글 지대를 형성했던 이그나바스에 있던 수호석이 보이드의 손에 들어가자 그 울창하고 거대했던 숲이 단번에 시들고, 이내 사막 지대로 변해버렸다.
  - ✓ 수호자들은 보이드의 행태에 분개하며, 그들을 다시 추격하려 하지만, 보이드의 심복인 헤르케리움이 수호자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는 이그나바스에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놓아 수호자들의 발을 묶어놓 심산이었다.
  - ✓ 그리고 보이드는 남아 있던 다른 수호석 또한 손에 넣는 것에 성공하고는 2 개 수호석의 힘을 취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은신처로 들어가 수호석이 가진 힘을 흡수하려 한다.
  - ✓ 녹스와 수호자 일행은 헤르케리움이 풀어놓은 하수인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사막화가 최근에 이루어졌던 곳을 따라 보이드를 추격한다.

➤ 액트 7(카이온의 빙정 호수)

- ✓ 그렇게 이그나바스의 사막화 지형을 따라가다보니, 카이온 왕국 뒤편의 정령의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곳 역시 이그나바스와 마찬가지로 원래 있어야 했던 수호석이 없어지자, 따뜻한 봄과 같은 날씨를 자랑하던 정령의 호수가 차디찬 흑한의 겨울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고, 그 지역에 존재하던 모든 정령들 또한 타락하여 이상한 괴물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다.
- ✓ 수호자들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며, 현재 수호자들의 길을 막고 발을 묶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보이드를 추적하여, 수호석의 힘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정령들 또한 거침없이 베고 지나간다.

➤ 액트 8(보이드의 파멸의 등지, 지옥수렁)

- ✓ 헤르케리움이 미리 마련해두었던 은신처, 파멸의 등지에서 보이드는 칩거하여 수호석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헤르케리움은 아슬란 대륙 전역에 퍼져 있던 보이드의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을 등지로 그러모아 앞으로 닥쳐올 수호자들을 막아서 시간을 벌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
- ✓ 녹스와 수호자 일행은 이러한 사실을 금방 깨달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뚫고 헤쳐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다.
- ✓ 아슬란 전역에서 그러모은 추종자, 하수인들과 함께 수호자 일행을 막아서던 헤르케리움은 결국 수호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길을 내어줄 수 밖에 없게 되는 듯 하였으나,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벌써 수호석의 힘을 흡수해버린 보이드가 눈 앞에 당당히 나타난다.
- ✓ 보이드와 녹스를 위시한 수호자 일행은 수호석의 힘을 받아 격돌하게 되고, 마침내 보이드를 쓰러뜨리게 된다.
- ✓ 그러나 수호자들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보이드를 아예 소멸시켜버릴 수는 없었고, 결국 과거의 봉인 사태와 마찬가지로 보이드를 재봉인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 ✓ 그러나 보이드는 봉인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며, 차원 너머의 봉인으로 가버린다.

## 2.2 버서커 다이얼로그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 ISTJ)

✧ 말보다 생각을 더 많이한다. 신중하다. 꼼꼼하다. 현실적이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고, 규칙적이다.

### ➤ 액트 1

#### ✓ 1-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
- ✦ 렉스 한니발 - 허억.. 허억.. 매일 같은 꿈이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군.
- ✦ 렉스 한니발 - 하기가 이 꿈이 익숙해진다면 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버려지겠지.
- ✦ 렉스 한니발 - 내 정신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내 손으로 친동생의 심장을 도려내게 만들다니... 악독한 자식...
- ✦ 렉스 한니발 - 왜 그랬는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 ✦ 렉스 한니발 - 그저 놈이 어디에 있건 아슬란 전역을 뒤져서라도 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 ✦ 렉스 한니발 - 기다려라... 언젠가 네 놈의 목숨이 끊어지는 때에 반드시 내가 네 놈 앞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있을 것이다...
- ✦ 렉스 한니발 - 그러려면 보이드 놈이 어디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에겐 보이드에 대한 단서가 많지 않다.
- ✦ 렉스 한니발 - 일단 무작정 보이드 자식이 풍겼던 기운 따라 정처없이 헤맸는데, ...지금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아슬란 남부 지역에 도착했군...
- ✦ 렉스 한니발 - 일단 가까운 마을에서 주린 배 좀 채우고, 긴 여정으로 인해 지친 몸 좀 쉬어야겠어.
- ✦ 렉스 한니발 - 그런데 이 마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없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건가?

✓ 1-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어쩐지 마을의 분위기가 흥흥하다 했더니, 요 근래 들어서 마을 밖으로 일보러 나간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이 돌아오지 못했다라...
- ✚ 렉스 한니발 -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과...
- ✚ 렉스 한니발 - 내가 보이드 녀석이 풍겼던 기운을 따라 나도 모르게 온 곳이 아슬란 남부 지역...
- ✚ 렉스 한니발 - 이 지역 어딘가에서 놈들과 관련된 자들이 사악한 술수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 렉스 한니발 - 여기 마을 뒷편은 험준한 산악 지대에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 ✚ 렉스 한니발 - 일반 주민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당연히 마을 앞의 '웨르의 숲'을 거쳤을 것이다.
- ✚ 렉스 한니발 - 이 정도면 휴식도 적당히 취했고, 허기진 것 또한 해결했으니 '웨르의 숲'에 가봐야겠어.

✓ 1-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역시. 이 숲에 무언가 있다.
- ✚ 렉스 한니발 - 숲에선 청명한 기운과 맑은 공기 대신 음산하고 불쾌한 기운만이 맴돌고 있어.
- ✚ 렉스 한니발 - 그리고 무엇보다...
- ✚ 렉스 한니발 - 남부 지역의 이종족들은 폭력을 싫어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남부 지역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던데.
- ✚ 렉스 한니발 - 어째선지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이종족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보여.
- ✚ 렉스 한니발 - 오히려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듯한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고 있다.
- ✚ 렉스 한니발 - 게다가 이들에게서 살기뿐 아니라 보이드 자식이 풍겼던 기운과 흡사한 것이 느껴진다.
- ✚ 렉스 한니발 -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원인을 찾는다면 내 목적 달성에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지.

✓ 1-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이런 숲에 이렇게 큰 신전이 존재하다니.. 뭔가 굉장히 이질적이다..
- ✚ 렉스 한니발 - 심지어 이 신전.. 지어진지 오래된 것도 아니야..
- ✚ 렉스 한니발 - 그리고 지금껏 이 숲에서 느껴졌던 불길한 기운이 이 안에서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 ✚ 렉스 한니발 - 즉, 이 안에 보이드 자식이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있다..
- ✚ 렉스 한니발 -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거대한 신전을 지었으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거지..
- ✚ 렉스 한니발 - 일단 신전 안에 있는 놈이 보이드가 아니더라도,
- ✚ 렉스 한니발 - 그 놈을 초주검으로 만들어버리면 적어도 보이드에 대한 실마리는 얻을 수 있겠지..

✓ 1-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이상하다.. 매우 이상해..
- ✚ 렉스 한니발 - 내가 아무리 교단의 대무관이라고는 하지만.. 저 거구의 무지막지한 놈을 해치우다니..
- ✚ 렉스 한니발 - 다시 생각해보면, 보이드 자식의 기운을 강렬하게 뿜어내던 저 녀석이 내 눈 앞에 띄었을 때,
- ✚ 렉스 한니발 -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마냥 요동쳤고, 온 몸은 달궂진 쇠덩이처럼 뜨거워졌었다..
- ✚ 렉스 한니발 - 그리고 미칠듯한 분노가 느껴졌고, 눈 앞이 별게지더니.. 그 이후엔 기억이 나질 않는군..
- ✚ 렉스 한니발 - 정신을 차려보니 눈 앞에 있던 녀석은 숨이 끊어진 뒤였다..
- ✚ 렉스 한니발 - 뭐가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걸까.

## 2.3 데몬헌터 다이얼로그

### ▶ 액트 1

#### ✓ 1-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일개 추종자 주제에 끈질기게 도망치네.
- ✚ 루시 알렉산더 - 어짜피 저런 속도라면 내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야. 부질 없는 발악일텐데.
- ✚ 루시 알렉산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친다는 것은 무언가 수상해.
- ✚ 루시 알렉산더 - 오히려 나를 어딘가 정해진 목적지로 유인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건가?
- ✚ 루시 알렉산더 - 어디보자.. 저 놈들에게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기분 나쁜 기운이 이제는 이 지역에서도 느껴지네.
- ✚ 루시 알렉산더 - 아무래도 이 지역에 함정을 파놓고 나를 유인하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쓰지 그랬어.
- ✚ 루시 알렉산더 - 내가 이렇게 쉽게 함정을 알아차리면 사냥하는 재미가 없잖아.
- ✚ 루시 알렉산더 - 내 실력을 만만하게 보고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역겨운 너희 추종자들에게 곧 벌을 내릴 시간이 올테니.

#### ✓ 1-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일단 사냥감들은 모두 처리했는데.
- ✚ 루시 알렉산더 -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 ✚ 루시 알렉산더 - 이런 외진 숲에 무슨 일을 꾸미길래, 평소엔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추종자들이 둘 씩이나 눈에 띄는거지?
- ✚ 루시 알렉산더 - 심지어 추종자들에게서 느껴진 불길한 기운이 여기에 더 짙게 깔려있어.
- ✚ 루시 알렉산더 - 아무래도 이 지역 어딘가에 방금 사냥한 놈들의 은거지가 있는 게 분명해.
- ✚ 루시 알렉산더 - 놈들이 살기 위해 도망을 쳤든,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든, 내 발길을 이 지역으로 이끈 것을 후회하게 될거야.

✓ 1-6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놈들에게서 느껴졌던 기운이 점점 강렬해져.
- ✚ 루시 알렉산더 - 빛의 교단에서 잘 훈련된 빛의 인도자였는데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 나조차도 버티기 힘든데, 이 숲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들은 오죽할까.
- ✚ 루시 알렉산더 -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 ✚ 루시 알렉산더 - 저기 보이는 자들의 눈빛에 살기가 가득해.
- ✚ 루시 알렉산더 - 아마 이 숲에 깔려 있는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린 것 같은데?
- ✚ 루시 알렉산더 - 내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 ✚ 루시 알렉산더 - 빛의 인도자였을 때 보이드의 정신 기생충에게 당해봐서 알지.
- ✚ 루시 알렉산더 - 저들도 저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서 살생은 최소화해야겠어.
- ✚ 루시 알렉산더 - 어서 이 숲을 이렇게 만든 놈들의 은거지를 찾아내야 해.
- ✚ 루시 알렉산더 - 아무래도 미쳐버린 자들의 수가 많은 곳이거나,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자.

✓ 1-9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뭐지? 이런 울창한 숲에 거대한 신전이 있다니..?
- ✚ 루시 알렉산더 -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의 신전이야.
- ✚ 루시 알렉산더 - 보아하니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
- ✚ 루시 알렉산더 - 게다가 이 신전 안에는 지금껏 느껴왔던 불길한 기운이 한층 더 강렬하게 느껴져.
- ✚ 루시 알렉산더 - 이 곳이 바로 역겨운 녀석들의 은거지가 확실해.
- ✚ 루시 알렉산더 - 비록 지금은 빛의 인도자의 길을 포기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선 내가 해야되고,
- ✚ 루시 알렉산더 -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진 것 같아.

✓ 1-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루시 알렉산더 - 정말 위험했어..

✚ 루시 알렉산더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난입한 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 거대한 낮에 몸이 두 동강 났을거야.

✚ 루시 알렉산더 - 상상만 해도 끔찍해..

✚ 루시 알렉산더 -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으니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은 싸움이 끝나자마자 제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

✚ 루시 알렉산더 -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그냥 가버리는 건 도리에 어긋나겠지.

✚ 루시 알렉산더 - 자, 이제 이 쓰러진 거구의 남자를 어떻게 한담.

## 2.4 아칸 다이얼로그

### ▶ 액트 1

#### ✓ 1-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보이드를 숭배하는 추종자들이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 ✚ 넬 슈리온 - 이전에는 비밀리에 그저 추종자들의 수만을 늘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젠 남부 지역의 웨르의 숲이라는 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어.
- ✚ 넬 슈리온 - 게다가 퀸투스라고 불리는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 ✚ 넬 슈리온 -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나 같은 말단 추종자에게는 구체적인 내용까진 알려주질 않아.
- ✚ 넬 슈리온 - 일단 지금의 추종자 무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추종자들이 모인다는 웨르의 숲으로 가봐야겠어.
- ✚ 넬 슈리온 -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수 밖에..

#### ✓ 1-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일단 몰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까진 성공했는데..
- ✚ 넬 슈리온 -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아슬란을 파멸로 인도할 사악한 술수를 부리겠다는 것이고,
- ✚ 넬 슈리온 - 그것은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 ✚ 넬 슈리온 - 언제까지 보이드의 추종자로 둔갑하여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 ✚ 넬 슈리온 - 무엇보다 말단 추종자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다.
- ✚ 넬 슈리온 - 누가 되었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해.

✓ 1-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드디어 웨르의 숲에 도착했어..
- ✚ 넬 슈리온 - 숲에서 보이드의 기운이 짙게 깔려있는 걸로 봐서 이미 그들의 계략은 시작된 것 같아.
- ✚ 넬 슈리온 - 게다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이 곳의 원주민들과 숲지기들은 보이지도 않고, 못 보던 신전까지..
- ✚ 넬 슈리온 - 아마 저 신전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겠지.
- ✚ 넬 슈리온 - 아마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 ✚ 넬 슈리온 - 일단 신전 안으로 몰래 잠입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

✓ 1-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숲 깊숙한 곳에 신전까지 지어두고 도대체 무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 ✚ 넬 슈리온 - 이 숲에 살고 있는 자들을 생포한 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실험을 하고 있다니.
- ✚ 넬 슈리온 -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저들의 말에 따르게 되는건가.
- ✚ 넬 슈리온 - 악독한 놈들.
- ✚ 넬 슈리온 - 이 숲에 살고 있는 생명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있는 걸 보니, 눈에 띄는 거라면 마구잡이로 데려다 놓고 이런 잔혹한 짓을..

✓ 1-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다행이야. 그런데 저 덩치 큰 남자는 왜 갑자기 쓰러진거지?
- ✚ 넬 슈리온 -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 ✚ 넬 슈리온 - 뜬금없이 처음 보는 인간들이 오더니 저 괴상하게 생긴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을 해치워버렸네.
- ✚ 넬 슈리온 - 도대체 저 인간들.. 정체가 뭐지?
- ✚ 넬 슈리온 - 생긴 거로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는 보이드의 상급 하수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 ✚ 넬 슈리온 - 다른 어떤 특별한 힘이라도 가지고 있는걸까?
- ✚ 넬 슈리온 - 마침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들이 나타난 것 같으니, 가짜 추종자 생활은 이제 그만둬도 되겠어.

## 2.5 나이트 다이얼로그

### ▶ 액트 1

#### ✓ 1-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난 북부 로아나프 왕국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사절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 ✚ 제롬 레오파드 - 계획대로 동맹이 이루어지지가 싶었더니만, 마지막 날에 성대한 연회자리에서 누군가 우릴 습격했다.
- ✚ 제롬 레오파드 - 다들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던 터라 나를 제외하고 모두 목숨을 잃었지.
- ✚ 제롬 레오파드 - 나 홀로 겨우 살아남아 도망쳤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이오리아로 돌아왔더니,
- ✚ 제롬 레오파드 - 나는 동맹국의 국왕을 암살하려 한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다.
- ✚ 제롬 레오파드 - 남부 지역에는 나를 생포하라는 수배령이 도시 전역에 깔렸고, 뒷골목의 큰 손들은 내 목숨에 현상금까지 걸어버렸다.
- ✚ 제롬 레오파드 - 이제 내 정체를 숨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마음 놓고 쉴 곳조차 없다..
- ✚ 제롬 레오파드 -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감정에 휘둘러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 ✚ 제롬 레오파드 - 하루 빨리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자들을 찾아내서 복수해주마.

#### ✓ 1-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몸을 못 가눌 정도의 큰 상처들은 거의 다 아물었다.
- ✚ 제롬 레오파드 - 이제 본격적으로 내 누명을 벗겨 내기 위해 움직여볼까..
- ✚ 제롬 레오파드 - 일단 남부 지역에서는 수배령이 퍼진 상태라 너무 위험해. 그러니 먼저 로아나프 왕국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봐야겠어.
- ✚ 제롬 레오파드 - 난데없이 이오리아 왕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 체결을 하는 것도 수상하고,
- ✚ 제롬 레오파드 - 무엇보다 연회장에서 우릴 습격했던 자들의 기척이 소름 돋게 음침했다.
- ✚ 제롬 레오파드 -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 왕국으로 가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야.
- ✚ 제롬 레오파드 - 북부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웨르의 숲을 거쳐야 되니, 지체하지 말고 출발해야겠군.

✓ 1-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웨르의 숲에 도착하긴 했는데, 이 곳이 원래 이렇게 조용하고 음산했었나?
- ✚ 제롬 레오파드 - 내가 알기론 이오리아 사람들과 웨르의 숲에 사는 부족들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교류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 제롬 레오파드 -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자들은 눈빛부터가 이상한데..
- ✚ 제롬 레오파드 - 잠...깐..만.. 녀석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척.. 연회장에서 우릴 급습했던 놈들과 매우 흡사해..
- ✚ 제롬 레오파드 - 그 놈들과 이 녀석들이 한 패라면, 북부 지역에 있던 놈들이 남부 지역에까지 손을 뻗었다는 얘기인데..
- ✚ 제롬 레오파드 -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겠는걸..
- ✚ 제롬 레오파드 - 어쩌면, 이 녀석들에게서 북부 지역 놈들에 대한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 1-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이 무식하게 생긴 건물은 또 뭐야..!?
- ✚ 제롬 레오파드 - 이렇게 왜 숲 한 가운데에 딱 하니 자리잡고 있는거지?
- ✚ 제롬 레오파드 - 게다가 이 건물 주변에 아까처럼 눈빛에서부터 맛이 간 놈들이 즐비해..
- ✚ 제롬 레오파드 - 저 무식하게 생긴 건물은 놈들의 은거지라고 광고를 하는건가.
- ✚ 제롬 레오파드 - 어찌 되었든 열쇠를 찾기 위한 수고를 덜어주는 셈이니 귀찮은 일 하난 안 해서 좋군.

✓ 1-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뭐야. 이 사람들.
- ✚ 제롬 레오파드 - 해치워야 할 대상이 같아서 얼떨결에 같이 싸우긴 했지만, 하나같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 ✚ 제롬 레오파드 - 게다가 합을 맞춰본 적도 없이 이렇게 매끄러운 연계 전투가 이루어지다니..
- ✚ 제롬 레오파드 -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 ✚ 제롬 레오파드 - 내 목적은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를 조사하는 것이야.
- ✚ 제롬 레오파드 -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는 무리지.
- ✚ 제롬 레오파드 - 밀저야 본전. 이들을 꼬드겨서 북부 지역까지 함께 가자고 해야겠어.

## 2.6 공통 다이얼로그

### ▶ 액트 2

#### ✓ 2-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
- ✚ 루시 알렉산더 - ...
- ✚ 제롬 레오파드 - 이거 원,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조용히만 있지 말고,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 ✚ 루시 알렉산더 - 조용히 해.
- ✚ 제롬 레오파드 - 왜 초면부터 반말..
- ✚ 루시 알렉산더 - 췌. 쥐새끼가 한 마리 더 있어.
- ✚ 제롬 레오파드 - ...!?!?
- ✚ 넬 슈리온 - 다 들리는데, 불쾌하네요.
- ✚ 넬 슈리온 - 이렇게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쥐새끼도 있나요?
- ✚ 루시 알렉산더 - 드디어 나왔네.
- ✚ 제롬 레오파드 - 정체가 뭐야? 너. 아까 그 놈과 한 패인가?
- ✚ 넬 슈리온 -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 ✚ 루시 알렉산더 - 그걸 어떻게 믿지?
- ✚ 넬 슈리온 - 그건 내 뽀족한 귀와 보랏빛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 ✚ 넬 슈리온 - 이것은 아슬란을 수호하는 자의 표식과도 같은 것 이지요.
- ✚ 루시 알렉산더 - 흠. 교단의 오래된 서고에서 본 적이 있어.
- ✚ 루시 알렉산더 - 당신이 그 태초부터 존재했었던 넬 종족인가요?
- ✚ 넬 슈리온 - 맞아요.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 ✚ 제롬 레오파드 - 잠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난 뭐가 뭔지 모르겠고,
- ✚ 제롬 레오파드 - 우리가 방금 처치한 저 놈과 여기 이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야겠어.
- ✚ 넬 슈리온 - 그건 잠시..
- ✚ 녹스 - 고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 ✚ 넬 슈리온 - 저 분이 깨어나시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일어나셨네요.

✓ 2-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 ✚ 넬 슈리온 - 하지만 이 놈을 함께 해치우신 걸 보면 목적이야 어떻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 ✚ 넬 슈리온 -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전, 보이드라고 불리는 사상 최악의 존재가 아슬란에 강림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그것은.. 잘 알고 있다.
- ✚ 루시 알렉산더 - 저도 마찬가지로요.
- ✚ 넬 슈리온 - 저는 보이드를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군요.
- ✚ 넬 슈리온 - 그래서 보이드가 무엇을 꾸미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를 추종하는 집단으로 들어갔습니다.
- ✚ 넬 슈리온 -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보이드가 꾸미는 계획을 파악해서, 휘방을 놓고 다녔습니다. 보이드의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최대한 늦출 작정으로 말이죠.
- ✚ 넬 슈리온 - 다만 그들과 같이 지낸 시간이 꽤나 지났기에 제 몸에서 그들이 풍기고 다니는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 줄도 모르고 쥐새끼라 말했네요. 미안해요.
- ✚ 넬 슈리온 - 괜찮아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 ✚ 렉스 한니발 - 일단은 모두 자기소개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찌다가 여기에 오게 된건지.. 웬지 여기 있는 자네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말이야.
- ✚ 렉스 한니발 - 먼저 나부터 하지. 나는 어둠의 교단에서 대무관의 자리에 있었던 렉스 한니발이라고 하네. 편하게 렉스라고 부르거나.
- ✚ 루시 알렉산더 - 역시 범상치 않은 분이었군요. 저는 빛의 교단에서 빛의 인도자였었던 루시 알렉산더라고 해요. 루시라고 불러줘요.
- ✚ 제롬 레오파드 - 저는 이오리아 왕국기사단의 부단장이었던 제롬 레오파드입니다. 부르는건 제롬이라고 해주세요.
- ✚ 넬 슈리온 - 저는 슈리온이에요. 소개는 아까 다 했죠?
- ✚ 렉스 한니발 -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보이드를 처단하려는 목적이 있는건가?
- ✚ 루시 알렉산더 - 네. 저는 그래요.
- ✚ 제롬 레오파드 - 저도 같습니다. 그럼 목적도 같은데, 함께 가실래요?
- ✚ 렉스 한니발 - 함께 하는 건 나도 동의하네. 그런데 어디 가야할 곳이라도 있나?
- ✚ 루시 알렉산더 - 그건 아마도 슈리온님이 아실 듯 한데요.
- ✚ 넬 슈리온 - 저도 사실 말단 추종자여서 이 이상 알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 ✚ 렉스 한니발 - 흠.
- ✚ 제롬 레오파드 - 그렇다면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로 가시죠.

✓ 2-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북부 지역으로 가야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 ✚ 제롬 레오파드 - 아까는 간단히 소개했는데, 저는 이오리아 왕국을 건국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레오파드 가문의 장손입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가문에서 내려오는 쌍검술 실력을 인정 받아 왕국기사단의 부단장이 되었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부 지역의 로아나프에서 느닷없는 지원군을 요청하더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동맹 관계도 아니었기에 상당히 뜬금없는 요청이지만 우리 왕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지원군 요청을 들어주고나니 우리에게 동맹을 체결하자고 하더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리고 저는 그 동맹 체결 사절단의 호위대장으로 로아나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항하여 동맹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동맹을 기념하는 연회장에서 우리 사절단은 기습을 받았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연회장이라면 왕국 중심부 아닌가?
- ✚ 제롬 레오파드 -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기습으로 인해 몰살 당해버렸고, 저만 홀로 만신창이가 된 채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그리고 그 몸으로 힘겹게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저는 동맹국의 국왕을 암살하려 한 대역죄인이 되어있었고, 우리 가문은 그 책임을 물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매정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 당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북부 지역으로 가야하는 것 인가요?
- ✚ 제롬 레오파드 - 제 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그 때 로아나프에서 기습한 자들의 기운이 굉장히 불쾌해서 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까 해치운 저 놈이 풍기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제가 여기로 온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 ✚ 넬 슈리온 -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로아나프로 가야 해요.
- ✚ 렉스 한니발 - 내가 북부 지역 사람이라 로아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네만. 로아나프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철통 수비를 사랑하는 베히모스 요새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가?
- ✚ 제롬 레오파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거길 지나서 갔어요. 하지만 제가 그 곳에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겠습니까?
- ✚ 제롬 레오파드 - 그런 요새라고 해도 허점은 있더군요. 소수 인원이라면 제가 나왔을 때처럼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잘 됐네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출발해요.

✓ 2-9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몰래 들어오긴 했는데, 왠지 우리가 한 발 늦은 것 같은데요.
- ✚ 루시 알렉산더 - 그래 보이는군요. 웨르의 숲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같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 ✚ 렉스 한니발 - 이 요새는 로아나프 소속 병사들이 관리하고 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흉측한 마물들이 득시글거리는거지?
- ✚ 제롬 레오파드 -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긴 로아나프 소속 경비병들이 즐비했었는데..
- ✚ 렉스 한니발 - 그렇다면 다행 아닌가? 이들이 일반 병사라면 사람이기에 죄책감을 느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 ✚ 넬 슈리온 - 다행이라고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 ✚ 렉스 한니발 -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 ✚ 넬 슈리온 - 그럼에도 제가 당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곳에 웨르의 숲에서 본 녀석보다 강력한 개체가 느껴지거든요.
- ✚ 렉스 한니발 - 흠. 새겨 들겠네. 주의하도록 하지.

✓ 2-10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조금 더 강력하긴 했어도 우리 넷의 힘을 합치니 물리치는 데에는 큰 피해는 없었네요.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이 분..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싸움이 끝나면 픽픽 쓰러지는거예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거야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알리가 없잖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본 분인데.
- ✚ 넬 슈리온 - 아까 전투하기 전에 지켜봤었는데요. 렉스님이 상급 하수인과 전투에 돌입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마치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 ✚ 제롬 레오파드 - 다른 사람이요?
- ✚ 넬 슈리온 - 전투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숨소리도 거칠어지시고, 말도 없으시던데.
- ✚ 루시 알렉산더 - 그러고보니 약간 눈에서도 핏기가 보이던 것 같아요.
- ✚ 제롬 레오파드 - 깨어나면 물어보죠.

➤ 액트 3

✓ 3-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으음.. 요즘따라 자주 정신을 잃는군.
- ✚ 루시 알렉산더 - 왜 잃으시는지 렉스님 본인도 모르세요?
- ✚ 렉스 한니발 -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군.
- ✚ 제롬 레오파드 - 원래 그러신 건 아니었군요.
- ✚ 렉스 한니발 - 당연하네. 싸움이 끝날 때마다 지금처럼 쓰러지면 내가 어떻게 대무관의 자리까지 올랐겠는가?
- ✚ 넬 슈리온 - 그럼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긴건가요?
- ✚ 렉스 한니발 - 글썄. 이걸 증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대신관이.. 죽은 다음이라네.
- ✚ 루시 알렉산더 - 대신관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 ✚ 렉스 한니발 - 대신관은 내 친동생이었네. 그리고 내가 죽었지.
- ✚ 루시 알렉산더 - ...
- ✚ 렉스 한니발 - 정신 기생충이라고 아는가?
- ✚ 렉스 한니발 - 내가 그 기생충에게 정신을 지배 당했고, 내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네.
- ✚ 렉스 한니발 -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생의 숨은 끊어져 있었고, 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보이드 놈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지.
- ✚ 넬 슈리온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 렉스 한니발 - 그 후로 보이드 놈의 기운이 느껴질 때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군.
- ✚ 렉스 한니발 - 그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몸과 심장은 뜨거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져..
- ✚ 루시 알렉산더 - 그래서 보이드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상급 하수인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군요.
- ✚ 렉스 한니발 - 그런 것 같아. 사실 조무래기들이 풍기는 얕은 기운이라도 느껴진다면 심장이 빨리 뛰거든.
- ✚ 넬 슈리온 - 다음 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최대한 이성의 끈을 놓지 마세요.
- ✚ 렉스 한니발 - 나도 그러고 싶네만, 그게 마음 먹은대로 쉽지가 않아서 말일세..
- ✚ 제롬 레오파드 - 이야기하는 동안 로아나프의 지하 통로에 도착했네요. 따라오시죠.

✓ 3-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 ✚ 제롬 레오파드 - 끔찍하네요.
- ✚ 렉스 한니발 - 어떻게 뼈만 남은 죽은 자들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 ✚ 넬 슈리온 - 아마 이것도 보이드의 짓이겠죠.
- ✚ 넬 슈리온 -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존재들이지만, 이들이 원해서 저렇게 된 건 절대 아니죠.
- ✚ 넬 슈리온 - 원래 땅 속에서 영면해야 되는 존재이거늘.
- ✚ 루시 알렉산더 - 산 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은 자의 안식조차 방해하다니. 사악하고, 잔혹한 놈인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 ✚ 렉스 한니발 - 그럼 저들이 다시금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나.
- ✚ 제롬 레오파드 - 쟀장할.. 저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구요?
- ✚ 넬 슈리온 - 보이드.. 파멸의 보이드요.
- ✚ 렉스 한니발 - 무슨 문제라도 있나?
- ✚ 제롬 레오파드 - 저 앞에 제가 아는 자가 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
- ✚ 제롬 레오파드 -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도망치던 왕국기사단 소속.. 동맹 사절단 호위대의 부대장..
- ✚ 제롬 레오파드 - 함께 살아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에, 여태 잊을 수가 없었던 녀석입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이런데서 만날 줄이야.

✓ 3-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나도 나를 대무관이었던터라 힘겨운 전투에는 자신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죽은 자들과 전투를 지속하니, 몸이 아니라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군.
- ✚ 루시 알렉산더 - 저는 워낙 마물들을 많이 사냥해온터라 정신적인 타격은 거의 없지만,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 이런 자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 ✚ 넬 슈리온 - 제가 말단 추종자였을 때, 헛소문처럼 나돌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실이었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헛소문처럼 나돌던 이야기요..?
- ✚ 넬 슈리온 - 네. 보이드는 정신 기생충을 통해 다른 자들을 조종하는 사악한 짓을 해왔어요.
- ✚ 넬 슈리온 - 그러던 중, 보이드 정도의 위대한 존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곤 했어요.
- ✚ 넬 슈리온 - 아마 그 이야기가 헛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듯 합니다. 우리가 웨르의 숲에서 본 산 자들의 정신을 강제로 억압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나봐요.
- ✚ 제롬 레오파드 - 산 자를 그렇게 하는 것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참혹한 짓인데, 죽어서도 안식할 수 없게 하다니..!
- ✚ 루시 알렉산더 - 우리 마저 지켜보기만 할 순 없어요.
- ✚ 렉스 한니발 - 옳은 소릴세. 나도 이제 약한 소리로 우리들의 사기를 깎는 실언은 하지 않겠네.
- ✚ 렉스 한니발 - 다소 힘겨워도, 강행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네.
- ✚ 제롬 레오파드 - 아까부터 서쪽 방향에서 계속 죽은 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쪽으로 가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 3-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하다니.
- ✚ 제롬 레오파드 - 끔찍하군요.
- ✚ 렉스 한니발 - 악독한 놈인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 일줄이야..
- ✚ 렉스 한니발 - 죽은 자들의 영혼은 저 둥둥 떠다니는 마물로 만들어버리고, 영혼이 빠져나온 빈 몸뚱아리는 살가죽을 벗겨내어 해골 병사로 만들어 버리다니..
- ✚ 루시 알렉산더 - 어쩐지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골 병사들과 마물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 싶더라니. 이런 잔혹한 방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네요.
- ✚ 렉스 한니발 -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베히모스 요새에서 경비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군.
- ✚ 넬 슈리온 - 아무래도 로아나프 왕국에 거주하던 주민과 병사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렇게 만들어 버렸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서둘러 여기에 있는 끔찍한 시설을 부숴버리고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 ✚ 렉스 한니발 - 이미 그러고 있네!

✓ 3-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이 자식이었습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이 자가 바로 이오리아 왕국과 동맹을 하겠다던 그 자인가요?
- ✚ 제롬 레오파드 - 네.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복수를 해서 다행입니다. 먼저 불귀의 객이 된 제 동료들도 이제 정말로 안식할 수 있겠죠..
- ✚ 렉스 한니발 - 문제는 해결했지만 영 썩고러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
- ✚ 넬 슈리온 - 그게 무슨 소리에요?
- ✚ 렉스 한니발 - 로아나프 왕국 말일세. 지금은 북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오랜 시간 지켜봐온 로아나프 왕국은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
- ✚ 렉스 한니발 -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국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더니 일으키는 전쟁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고, 이내 북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로아나프 왕국의 것이 되었지.
- ✚ 넬 슈리온 - 미심쩍은 부분이 많군요.
- ✚ 렉스 한니발 - 그렇지. 제롬, 자네도 왕국기사단 출신이었으니, 소규모 전쟁도 실제 치르기 전까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지.
- ✚ 제롬 레오파드 -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그런데 로아나프 왕국이 북부 지역을 장악할 땐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
- ✚ 넬 슈리온 - 그렇다는 것은 이미 북부 지역을 장악하기 전부터 로아나프의 멜 황제는 보이드의 추종자였겠네요.
- ✚ 렉스 한니발 -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지.
- ✚ 넬 슈리온 - 보이드는 멜 황제를 통해서 북부 지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었고, 그 계획이 성공하자, 남부 지역까지 손에 넣으려 한 것이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어쩐지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뜬금 없이 우리에게 동맹을 요청하더라니.. 모두 보이드의 계략이었군요.
- ✚ 루시 알렉산더 - 모두 이것 좀 보세요. 멜 황제의 품 속에서 이상한 서신을 찾았어요.

➤ 액트 4

✓ 4-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아그문트에 하수인들을 보내라.' 라..
- ✚ 렉스 한니발 - 아그문트라면, 북서쪽에 위치한 화산 지대인데.
- ✚ 렉스 한니발 - 그 지역에 있는 화산은 왕성한 용암 분출로 인해 용암 마을 일이 없다고 알고 있네.
- ✚ 넬 슈리온 - 그 곳에서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멜 황제에게 친히 서신까지 보내어 명령한 거겠죠.
- ✚ 제롬 레오파드 - 아마도 그렇겠죠.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게 뭔가요?
- ✚ 루시 알렉산더 - 보이드는 그토록 원하던 봉인에서 풀려나게 되었잖아요?
- ✚ 넬 슈리온 - 그렇죠.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런 사악한 짓을 꾸미고 있는걸까요?
- ✚ 넬 슈리온 - 보이드는 오랜 시간 봉인으로 인해, 풀려나긴 했지만 아직 예전의 힘을 모두 되찾은 것은 아니에요.
- ✚ 넬 슈리온 - 그리고 과거 신들의 세계에서 보이드가 봉인 당하게 된 이유는 가져선 안될 힘을 탐했고, 그걸 손아귀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 루시 알렉산더 - 가져선 안될 힘이요?
- ✚ 넬 슈리온 - 네. 아슬란의 모든 존재들을 창조해낸 세계수는 다들 아실테고, 그 세계수의 근원이 되는 힘이 바로 '수호석' 이에요.
- ✚ 렉스 한니발 - 말로만 들어도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을 듯하군.
- ✚ 넬 슈리온 - 보이드는 그 수호석들을 모두 손에 넣은 적이 있으니, 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죠. 다만, 봉인 당하면서 보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수호석들은 아슬란에 흩뿌려졌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이드는 바로 그 수호석을 찾아서 과거에 얻지 못했던 힘을 다시 얻으려는거예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것이 그럼 아그문트에 있다는 겁니까?
- ✚ 넬 슈리온 - 가능성이 매우 높죠.

✓ 4-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드레이크 -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 ✚ 헤르케리움 - 말 장난 하지말고 중요한 것부터 말하라.
- ✚ 드레이크 - ..우리가 아그문트에서 찾던 그 수호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근 시일 내에 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 헤르케리움 - 뭐라? 그것이 사실인가?
- ✚ 드레이크 -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 ✚ 드레이크 - 아무래도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드레이크 - 수호석을 찾는 것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었는데, 벌써 저와 같은 상급 하수인 둘과 멜 황제가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 ✚ 헤르케리움 - 같은 놈들에게 죽은 것 인가?
- ✚ 드레이크 - 정황 상 그런 것 같습니다.
- ✚ 헤르케리움 - 상급 하수인 둘과 멜 황제를 해치울 능력이라면 꽤나 골치가 아픈 것들이 나타났군.
- ✚ 헤르케리움 - 얼마 전 멜 황제에게 증원 서신을 보내지 않았나?
- ✚ 드레이크 - 네. 로아나프에서 증원된 인력으로 수호석을..
- ✚ 헤르케리움 -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그 녀석들이 서신을 발견했다면 여기에 올지도 모르겠군.
- ✚ 헤르케리움 - 일단 나는 보이드님에게 이 소식들을 전하러 가겠다.
- ✚ 헤르케리움 - 너와 로난은 발견한 수호석을 취하는 데 우선하고, 혹시라도 녀석들이 온다면 필사적으로 대항하라.
- ✚ 드레이크 - 알겠습니다.

✓ 4-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여긴 더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뜨겁구만..
- ✚ 제롬 레오파드 - 저도 더울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워서 고되네요.
- ✚ 루시 알렉산더 - ...뜨거운 건 딱 질색이야. 불도 용암도.
- ✚ 제롬 레오파드 - 그거야 웬만한 사람은 싫어하지만..
- ✚ 루시 알렉산더 - 그 정도가 아니에요.
- ✚ 넬 슈리온 - 그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나봐요?
- ✚ 루시 알렉산더 -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있어요.
- ✚ 넬 슈리온 - 그게 뭔가요?
- ✚ 루시 알렉산더 -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쳐들어 온 집단 강도단에 의해서 가족들이 모두 살해당했어요.
- ✚ 루시 알렉산더 - 그 후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구걸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죠.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빛의 교단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행운이 따랐죠.
- ✚ 루시 알렉산더 - 안타깝게도, 저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았고, 저는 어머니와도 같았던 고아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빛의 교단에 입단하여 빛의 인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빛의 교단은 대신관이 보이드에게 정신 지배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고, 저를 비롯한 수 많은 빛의 인도자들이 대신관과 같이 정신 지배에 당했죠.
- ✚ 루시 알렉산더 - 정신을 지배 당한 상태였을 때, 전 고아원의 아이들과 원장님을 제 손으로 죽이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 ✚ 루시 알렉산더 -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재가 되버린 후였죠..
- ✚ 루시 알렉산더 - 그래서 전 지금도 불이나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때 마다 그 때의 기억이 떠올라버려요..
- ✚ 넬 슈리온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 루시 알렉산더 - 렉스님과 제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떠올리면, 약해졌던 육신과 느슨해졌던 정신에게 채찍질하게 되거든요.
- ✚ 루시 알렉산더 - 뭐해요? 꾸물거릴 시간 없어요.

✓ 4-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옥 같거든요?
- ✚ 렉스 한니발 - 나도 그렇게 보이네.
- ✚ 제롬 레오파드 - 도대체 이런 곳에 이렇게 거대한 감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 ✚ 루시 알렉산더 - 음, 아까보니까 여기 있는 마물들이 죄다 곡괭이를 들고 있거나, 무얼 운반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 ✚ 루시 알렉산더 - 게다가 로아나프에서도 하수인을 더 보내라고 한거면, 이 곳에서 파묻혀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은 아까 슈리온님이 말씀하셨던 '수호석' 같아요.
- ✚ 렉스 한니발 - 일리 있구만. 자네, 말을 들어보니 나도 그 생각이 맞는 거 같네.
- ✚ 넬 슈리온 -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저들은 수호석을 찾지 못했어요.
- ✚ 렉스 한니발 - 그렇지. 찾았다면, 이렇게 뜨거운 곳에 남아 있을리가 없지.
- ✚ 제롬 레오파드 - 전 하수인을 더 보내라는 걸 따로 서신으로 써서 멜 황제에게 보낸 이유가 뭔가 이상해요.
- ✚ 제롬 레오파드 - 전쟁의 지원군처럼 비유해보면 증원 요청은 급박한 상황일 때나 승기를 잡으려고 할 때인데, 이런 경우는 상황이 급박한 것은 딱히 없을테고, 아무래도 수호석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아요.
- ✚ 넬 슈리온 - 보이드가 수호석을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야 해요.
- ✚ 렉스 한니발 - 아무래도 지금 이려고 있을 시간이 없는 듯 하구만. 어서 가세!

✓ 4-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이전에 만났던 놈들보다 더 강력한 놈들이네요.
- ✚ 넬 슈리온 - 보이드와 하수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의 존재를 파악했겠지요.
- ✚ 넬 슈리온 - 그리고 이 곳, 제가 예상했던대로 진짜 수호석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강력한 하수인더러 이 곳을 수호하라 명하였겠지요.
- ✚ 렉스 한니발 - 그건 그렇고, 다들 다친 덴 없나?
- ✚ 제롬 레오파드 - 몸을 못 가눌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닙니다. 조금만 쉬면 나올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에요.
- ✚ 렉스 한니발 - 다행이구만. 일단 우리도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도시에서 숨 좀 돌리고 가세.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수호석, 어떻게 하죠?
- ✚ 넬 슈리온 - 이걸 두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겠어요.

➤ 액트 5

✓ 5-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헤르케리움 - 죄송합니다. 보이드님.
- ✚ 보이드 -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
- ✚ 헤르케리움 - 첫 번째 수호석부터 녀석들에게 쥐버리다니, 제 불찰입니다.
- ✚ 보이드 - 어짜피 수호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 ✚ 보이드 - 네가 알지 못하는 수호석이 더 많을 것이니..
- ✚ 보이드 - 그리고 그 녀석들이 수호석 몇 개를 가졌든, 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 ✚ 헤르케리움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 보이드 - 자, 다른 수호석들의 위치는 파악됐느냐.
- ✚ 헤르케리움 - 우선 아그문트와 같이 거의 발견해낸 수호석은 이그나바스에 있습니다.
- ✚ 헤르케리움 - 그리고 몇 가지 단서로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한 수호석은 현재 두 곳이 더 있습니다.
- ✚ 헤르케리움 - 한 곳은 레피루스라는 나라에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카이온이라는 나라 근처에 있는 듯 합니다.
- ✚ 보이드 - 좋아. 그 정도면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구나.
- ✚ 보이드 - 헤르케리움이여.
- ✚ 헤르케리움 -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 ✚ 보이드 - 후일에, 내가 수호석의 힘을 취할 때에 거취할 비밀스런 곳을 만들어두도록 하여라.
- ✚ 헤르케리움 -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 ✓ 5-3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여긴 왠지 불쾌한 곳이군.
- ✚ 루시 알렉산더 - 그러게요.
- ✚ 넬 슈리온 -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 ✚ 렉스 한니발 - 여기 레피루스는 이단의 성지일세.
- ✚ 제롬 레오파드 - 이단의 성지요?
- ✚ 렉스 한니발 - 아, 이단이라 함은 가짜 종교를 뜻하는 걸세.
- ✚ 렉스 한니발 - 레피루스는 원래 나라가 아니었어. 고대의 존재를 모신다는 일념으로 모인 종교 집단이었지.
- ✚ 렉스 한니발 - 그런데 예상보다 교주를 따르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니, 하나의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규모가 된거야.
- ✚ 렉스 한니발 - 그렇게 그 신전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나라가 생겨버렸지.
- ✚ 렉스 한니발 - 그러니 루시나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신을 모시는 교단에 몸을 담았기에 불쾌할 수밖에 없지.
- ✚ 넬 슈리온 - 그럼, 휴식이 끝나는대로 바로 떠나는 게 좋겠군요.

✓ 5-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내 스스로가 불편해서 서둘러 이 곳을 뜨려고 했는데, 여기 이상하구만. 안 그렇소?
- ✚ 루시 알렉산더 - 네. 저기 보이는 용 비늘 장식으로 된 길, 레피루스 신전 입구죠?
- ✚ 렉스 한니발 - 그렇다고 알고 있네.
- ✚ 루시 알렉산더 - 예전에 웨르의 숲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저 안에서 느껴져요.
- ✚ 넬 슈리온 - 모두 이것 좀 봐요.
- ✚ 넬 슈리온 - 수호석이 반짝거리는데요..
- ✚ 제롬 레오파드 -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죠?
- ✚ 넬 슈리온 - 네. 비록 지니고 다닌 시간이 적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죠.
- ✚ 렉스 한니발 - 내 짧은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저 신전에 들어가봐야 할 것 같네만.
- ✚ 제롬 레오파드 - 수호석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 5-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본 신전은 상당히 깊숙한 곳에 있네요. 한참을 걸어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들어가는 거 보네요.
- ✚ 렉스 한니발 -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전에서 나오는 기운을 제대로 못 느꼈던 것 같군.
- ✚ 제롬 레오파드 - 슈리온님. 수호석은 아까 그대로인가요?
- ✚ 넬 슈리온 - 아뇨.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호석이 내뿜는 빛의 밝기가 점점 더 밝아져요.
- ✚ 넬 슈리온 -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수호석과 점점 가까워지나봐요.
- ✚ 루시 알렉산더 - 이 곳에 보이드의 하수인들이 있는 것과, 수호석의 반짝임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
- ✚ 렉스 한니발 - 이 곳에 또 다른 수호석이 있는 걸 보이드가 알아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교롭게도 모든 것이 딱 들어 맞는군.

✓ 5-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이 곳에 있었던 보이드의 하수인은 걸보기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 피해 없이 물리친 것 같아요.
- ✚ 넬 슈리온 -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호석의 힘 때문인 것 같아요.
- ✚ 루시 알렉산더 -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건가요?
- ✚ 넬 슈리온 - 그거야 저도 자세하게 알진 못해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에요.
- ✚ 넬 슈리온 - 저 또한 루시님처럼 아까 해치운 보이드의 하수인이 그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녀석인 것 같았거든요.
- ✚ 렉스 한니발 - 수호석 덕분이건 뭐건 일단 해치운 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
- ✚ 루시 알렉산더 - 어라, 그러고보니 이제 렉스님이 전투 후에도 멀쩡한데요?
- ✚ 렉스 한니발 - 그러고보니 그렇군. 이것도 수호석의 힘 덕분인가.
- ✚ 넬 슈리온 - 아무래도 세계수의 근원이 되는 힘이니까요.
- ✚ 넬 슈리온 - 별 효용이 없었으면, 보이드가 이걸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 ✚ 렉스 한니발 - 허허. 우리가 대단한 것을 찾아냈구만.
- ✚ 제롬 레오파드 - 슈리온님. 수호석 좀 볼 수 있을까요?
- ✚ 넬 슈리온 - 잠시만요.
- ✚ 제롬 레오파드 - 역시 아까보다 훨씬 밝아진 걸로 봐서 아직 보이드의 하수인들이 여기 있는 또 다른 수호석을 찾지 못했어요.
- ✚ 제롬 레오파드 -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없는 느낌이지만, 밝아지는 것을 보고 여기 있는 다른 수호석을 찾아내죠.

➤ 액트 6

✓ 6-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헤르케리움 - 보이드님.

✚ 보이드 - 말하라.

✚ 헤르케리움 - 그것이..

✚ 보이드 - 그냥 말하라.

✚ 헤르케리움 - 레피루스의 수호석 또한 그 녀석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 보이드 - ...그건 되었다. 헤르케리움이여. 내가 지시한 것은 되었느냐.

✚ 헤르케리움 - 예. 아직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 보이드 - 그런가.

✚ 보이드 - 또 다른 2 개의 수호석 위치는 어찌 되었는가.

✚ 헤르케리움 - 하나는 아슬란 북서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거대한 숲, 이그나바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온이라는 나라 뒷편에 있는 정령의 호수에 있습니다.

✚ 보이드 - 내가 직접 취하러 가겠다.

## ✓ 6-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찾았습니다!
- ✚ 넬 슈리온 -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리 주세요.
- ✚ 제롬 레오파드 - 네. 여기..
- ✚ 녹스 - 여기 계셨군요.
- ✚ 전원 - !!?
- ✚ 녹스 - 고마워요. 그대들이 모은 수호석 덕분에. 내 존재의 소멸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 ✚ 녹스 - 나는 녹스입니다...
- ✚ 전원 - ...여신님을 뵙습니다.
- ✚ 녹스 - 수고해준 그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지체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 ✚ 녹스 - 보이드가 조금 전에 수호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제길..
- ✚ 루시 알렉산더 -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 ✚ 녹스 - 남동쪽으로 가야합니다. 그 곳에서 원래 있어야 할 수호석이 보이드에게 넘어갔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어서 갑시다.

## ✓ 6-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보이드 - 드디어 한 개를 손에 넣었군.
- ✚ 헤르케리움 - 보이드님, 염려 되는 것이 있습니다.
- ✚ 보이드 - 말하라.
- ✚ 헤르케리움 - 방금 얻은 수호석이 여기 숲의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원이 없어지니, 지금 급속도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 보이드 -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될 일 이더냐?
- ✚ 헤르케리움 - 제 염려는 이 근방에 수호석을 갈취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 ✚ 헤르케리움 - 그 녀석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꼬리를 밝히게 되어, 위치가 탄로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 ✚ 보이드 - 상관 없다.
- ✚ 보이드 - 내가 본신의 힘을 되찾기만 한다면, 그런 녀석들 따위는 그저 미물에 불과한 존재다.
- ✚ 보이드 - 그런건 네가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은신처로 길을 안내하여라.
- ✚ 헤르케리움 - 알겠습니다.
- ✚ 헤르케리움 - (그래도 혹시 모르니, 녀석들의 발목을 붙잡을 하수인들을 두고 가야겠어.)

## ✓ 6-9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렉스 한니발 - 이 곳이, 내가 알던 이그나바스가.. 맞는 것 인가..
- ✚ 루시 알렉산더 - 여긴 거대한 정글이 아니라, 사막인데요.
- ✚ 렉스 한니발 -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 ✚ 루시 알렉산더 - 게다가 사방엔 보이드의 하수인들로 가득해요.
- ✚ 녹스 - 당신이 알던 이그나바스라는 것의 근원이 방금 보이드가 가져간 수호석입니다. 근원을 사악한 힘을 통해서 가져가 버렸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 제롬 레오파드 - 보이드가 수호석을 가져갔다고 하셨던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담, 보이드 놈은 적어도 이 근방에 있다는 것이 되네요.
- ✚ 렉스 한니발 - 그렇게 되는군. 서둘러 이 곳을 정리하고 보이드 놈을 추격하세나!

✓ 6-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젠장. 급해 죽겠는데, 왜 놈들이 자꾸 방해하는거야.
- ✚ 루시 알렉산더 - 저들도 생각이 없는건 아니니, 뒤를 밟히지 않으려고 우리의 발을 묶으려는 계략인 것 같아요.
- ✚ 루시 알렉산더 - 그래도 저들이 갔던 방향조차 놓친 것은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 ✚ 넬 슈리온 - 그나저나 끔찍하게 변했어요. 이 곳.
- ✚ 렉스 한니발 - 아슬란에서 가장 거대한 숲 지대였는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보이드 놈 때문에 영영 볼 수 없게 되었구만.
- ✚ 렉스 한니발 - 여신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 녹스 - 말씀해보세요.
- ✚ 렉스 한니발 - 보이드 놈이 봉인에서 풀려나 아슬란을 혼란스럽게 하며, 파멸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그 동안 그 놈이 그랬든 그 하수인이 그랬든,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죽었고, 지금처럼 지역 자체가 없어진 곳도 더러 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입니까?
- ✚ 녹스 -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거의 모든 수호석이 필요해요.
- ✚ 렉스 한니발 -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군요.
- ✚ 녹스 - 그런데, 과거 보이드를 봉인할 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무슨 문제입니까?
- ✚ 녹스 - 바로 보이드가 손에 넣었던 수호석들입니다. 보이드를 봉인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보이드가 손에 넣었던 수호석들은 다른 차원으로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슬란에 남은 수호석들은 지금처럼 곳곳에 흩어져 버렸죠.
- ✚ 녹스 -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 ✚ 전원 - .....

➤ 액트 7

✓ 7-1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보이드 - 두 번째 수호석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은신처로 가서 본신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 ✚ 보이드 - 헤르케리움이여.
- ✚ 헤르케리움 - 마침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 ✚ 보이드 - 충직한 자로고.
- ✚ 보이드 - 이제 힘을 회복하기만 하면, 무지한 자들이 모르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 7-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제롬 레오파드 - 아까는 사막화가 되어 후덥지근하더니, 이곳은 흑한의 겨울 날씨보다 더 추워요.
- ✚ 넬 슈리온 - 이 곳은 원래 정령들이 사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릴 줄이야.
- ✚ 넬 슈리온 - 여기서 정령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수호석의 힘 덕분인가요?
- ✚ 녹스 - 네. 아마 수호석이 있었던 곳은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러고보니 수호석이 있었던 곳은 용암이 마르지 않았거나, 거대하고 울창한 숲을 이뤘거나 했군요.
- ✚ 녹스 - 그런 셈이죠.
- ✚ 넬 슈리온 -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 녹스 - 네. 안타깝게도...
- ✚ 넬 슈리온 - 저도 살아온 시간이 짧지 않은터라, 외로울 때면 종종 이 곳을 찾아 정령들과 어울리곤 했는데...
- ✚ 넬 슈리온 - 보이드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 ✚ 렉스 한니발 - 그리고 지금처럼 날뛰고 있는 것 또한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네.
- ✚ 렉스 한니발 - 나 또한 그 자식에게 볼 일이 있고 말이지.
- ✚ 녹스 - 보이드가 이 같은 참혹한 짓을 또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막아내야 해요.

✓ 7-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넬 슈리온 - 맵소사.
- ✚ 넬 슈리온 - 이 곳에 있던 정령들마저 변해버리다니..
- ✚ 루시 알렉산더 - 저게 보이드의 하수인이나 마물이 아니고 원래 정령이었던 말인가요?
- ✚ 넬 슈리온 - 네.. 정령의 호수 주변에 노닐던 갓 태어난 정령들까지도 모두 변해버렸어요.
- ✚ 제롬 레오파드 - 모두 저 쪽을 봐주세요.
- ✚ 제롬 레오파드 - 지금 제가 잘못본 것 아니죠? 나무가 움직이는데요..
- ✚ 루시 알렉산더 - 아뇨.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 ✚ 넬 슈리온 - 신수.. 신수예요..
- ✚ 루시 알렉산더 - 신수라면 뭔가 신령한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닌가요?
- ✚ 넬 슈리온 - 네. 그렇죠.. 정령의 호수와 함께 우뚝 솟아 있던 거대한 신수, 프리젤리두즈.
- ✚ 넬 슈리온 - 끔찍해서 그만보고 싶어요.
- ✚ 렉스 한니발 - 그래도 어쩔 수 없소. 이미 옆질러진 물이니까.
- ✚ 렉스 한니발 - 물이 옆질러졌으면 서둘러 정리하고, 앞으로 다시 옆지르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이요.
- ✚ 넬 슈리온 - 되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셨으니, 비통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 7-9 스토리썬 다이얼로그

- ✚ 헤르케리움 - 이 곳입니다. 보이드님.
- ✚ 보이드 - 은신처로써 걸맞는 곳으로군.
- ✚ 보이드 - 내가 본신의 힘을 회복하는 동안, 네가 이 곳을 지키고 있도록 하여라.
- ✚ 보이드 -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오래도록 영원하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니.
- ✚ 헤르케리움 - 명심하겠습니다.
- ✚ 헤르케리움 - 걱정마시고, 영원하던 일을 이루소서.
- ✚ 헤르케리움 - (그나저나, 남겨둔 하수인들에게서는 소식이 없군. 불길한데.)

✓ 7-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역시나, 이 곳에도 녀석들의 하수인이 진을 치고 있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모두 물리쳤으니, 서둘러 흔적을 찾아봅시다.
- ✚ 녹스 - 찾으실 필요 없어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게 무슨 소립니까?
- ✚ 녹스 - 보이드가 손에 넣은 2 개의 수호석을 자신에게 흡수시키고 있어요.
- ✚ 넬 슈리온 - ...최악의 상황이 결국 발생했군요.
- ✚ 녹스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호석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흡수하려면 시간이 필요할거예요.
- ✚ 녹스 -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순 없지만, 수호석의 안내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 ✚ 렉스 한니발 -젠장.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해버리다니...
- ✚ 루시 알렉산더 -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으니, 수호석의 힘을 모두 흡수하는 것만큼은 막아보죠!

➤ 액트 8

✓ 8-1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헤르케리움 - 역시 이그나바스와 정령의 호수에 심어둔 하수인들에게서 소식이 없더라니. 그들 모두 차례로 몰살당했군.
- ✚ 헤르케리움 - 생각보다 놈들의 전력이 강하다.
- ✚ 헤르케리움 - 이 정도까지 강한 놈들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 ✚ 헤르케리움 - 도대체 지금껏 저런 놈들이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중요한 때에 나타난거지.
- ✚ 헤르케리움 - 그럼 내가 보이드님이 수호석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벌어야 한다.
- ✚ 헤르케리움 - 아슬란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추종자들과 하급 하수인들까지도 그러모아야겠군.
- ✚ 헤르케리움 -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해.

✓ 8-3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루시 알렉산더 - 참으로 소름끼치게 만들어진 곳이군요.
- ✚ 제롬 레오파드 - 그러게요.. 로아나프 지하에 있었던 곳과는 궤를 달리하는 끔찍한 곳입니다.
- ✚ 루시 알렉산더 - 그런데 이 곳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 ✚ 루시 알렉산더 - 무슨 목적으로 이런 곳을 만든 것 일까요.
- ✚ 녹스 - 아마 수호석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겁니다.
- ✚ 녹스 - 게다가 보이드는 과거에도 그리했고, 현재도 수호석이 가진 엄청난 힘을 탐하고 있습니다.
- ✚ 녹스 - 그렇게 고대하고 염원하는 일이었으니, 사소한 것도 그르칠까 두려워 이런 곳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 ✚ 렉스 한니발 - 확실히 여긴 음침하고 소름끼치게 생긴 것은 둘째치고, 마물들 또한 정말 끔찍하게 생겼소.
- ✚ 넬 슈리온 - 그리고 그 수도 어마하게 많아요.
- ✚ 루시 알렉산더 - 마지막 발악이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간을 벌려는 수작인 것 같아요.
- ✚ 루시 알렉산더 - 보이드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하수인, 마물들에게 이 모든 것이 헛된 짓임을 깨닫게 해주겠어요.

✓ 8-6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헤르케리움 - 네 녀석들이었나.
- ✚ 헤르케리움 - 보이드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 ✚ 넬 슈리온 - 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획이라고 떠드는구나.
- ✚ 제롬 레오파드 - 우리들의 존재와 행동을 알고 있는 걸 보니 보이드 놈의 오른팔 정도 되는 녀석인 것 같은데?
- ✚ 렉스 한니발 - 네 녀석을 찢어발기면 보이드의 위치로 알 수 있겠지.
- ✚ 헤르케리움 - 건방지구나. 네 녀석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것과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다니..
- ✚ 헤르케리움 - 큰 오산이다. 애송아.
- ✚ 렉스 한니발 - 애송인지 아닌지는 직접 붙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 ✚ 헤르케리움 - 너의 그 자신만만함을 송두리째 꺾어주마. 각오해라.

## ✓ 8-9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헤르케리움 - 제.. 젠장..
- ✦ 헤르케리움 -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다...!
- ✦ 제롬 레오파드 - 패자는 말이 없는 법.
- ✦ 헤르케리움 - 아직이다. 아직 지지 않았어.
- ✦ 보이드 - 그만하면 되었다. 헤르케리움이여.
- ✦ 헤르케리움 - 보... 보이드님...
- ✦ 보이드 - 너도 그만 안식하거라.
- ✦ 헤르케리움 - 무... 무슨...!
- ✦ 렉스 한니발 - 잔인한 놈이군.
- ✦ 루시 알렉산더 - 그래도 당신을 목숨을 바쳐가며 따르던 자인데..
- ✦ 보이드 - 잡소리가 길다.
- ✦ 보이드 - 내가 염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데,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나를 매우 귀찮게 하는구나.
- ✦ 보이드 - 내 직접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고,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
- ✦ 녹스 -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거예요.

✓ 8-10 스토리씬 다이얼로그

- ✚ 보이드 - 제... 제법이구나...
- ✚ 제롬 레오파드 - 다들... 괜찮으십니까...
- ✚ 렉스 한니발 - 숨 붙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일세...
- ✚ 루시 알렉산더 - ...살아는 있네요...
- ✚ 넬 슈리온 - 아마... 수호석... 덕분이겠죠...
- ✚ 보이드 - ㅎㅎ...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 녹스 - 모든 것이 끝났다. 어리석은 보이드여.
- ✚ 녹스 - 무엇이 이토록 비루하게 생을 연명하려 하는가.
- ✚ 보이드 - 비루...? 지금 비루하다고 하였나... 녹스여.
- ✚ 녹스 - 그렇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냐?
- ✚ 보이드 - ...어리석다 못해 멍청하군. 내가 어떻게 봉인에서 풀려났는지 모르겠지.
- ✚ 보이드 - 내가 모든 수호석을 손에 넣고 너희들에게 차원 봉인 당할 때에, 아슬란에 있었던 많은 수호석들이 함께 봉인 당하였다.
- ✚ 녹스 - 그건 어쩔 수 없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다.
- ✚ 보이드 - 소의 희생? 헛소리 집어치워라.
- ✚ 녹스 -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봉인시켜주마.
- ✚ 보이드 - ㅎㅎㅎ... 그래... 좋지...
- ✚ 보이드 -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 ✚ 넬 슈리온 - 더 이상 보이드놈의 헛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은 수호석의 힘으로 그 때처럼 봉인시켜버려요.
- ✚ 녹스 - 바로 실행에 옮기시다.
- ✚ 보이드 - ...내가 바라마지 않았던 것이다... ㅎㅎㅎ...
- ✚ 보이드 - 그... 차원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 ✚ 보이드 - ...난 죽지... 앓는...다..... 헤헤... 하하.....